

柔道

2025 가을호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judo.sports.or.kr



Vol. 143

특집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한국유도, 종합 2위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 획득

특별 인터뷰

배낙호 김천시장

유망주를 찾아서

여초부 -32kg 동주초등학교 이다인

유도학개론

2025 유도 를, 어떻게 바뀌었나

데이터랩

세계랭킹 1위의 올림픽 우승 확률은?



대한유도회
Korea Judo Association



CONTENTS



2025 AUTUMN
VOL. 143

2025 AUTUMN

KOREA JUDO ASSOCIATION
VOL.143

발행일

2025년 9월 25일 | 통권 143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조용철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17호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특별 인터뷰

02 뺃속까지 유도인, 배낙호 김천시장

특집

08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14 대회리뷰, 김종훈(-90kg 금메달) 인터뷰

국제대회

16 2025 울란바타르 그랜드슬램

국내대회

18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20 2025 백제왕도 익산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2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24 제41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

인터뷰

26 국가대표 전력분석관, 다나카 미키

현장을 찾아서

28 첫 질서상 품은 JNS 유도멀티짐
30 임희대 감독이 들려주는 드림 업 캠프 후기

유망주를 찾아서

32 여초부 -32kg급 최강자 이다인(동주초)

마니아열전

34 유튜브 '홍관장 TV', 홍지환 관장을 만나다

맞수대전

36 경기체고 장혜윤 vs 광주체고 김하은

유도학개론

38 2025 유도 룰, 어떻게 바뀌었나

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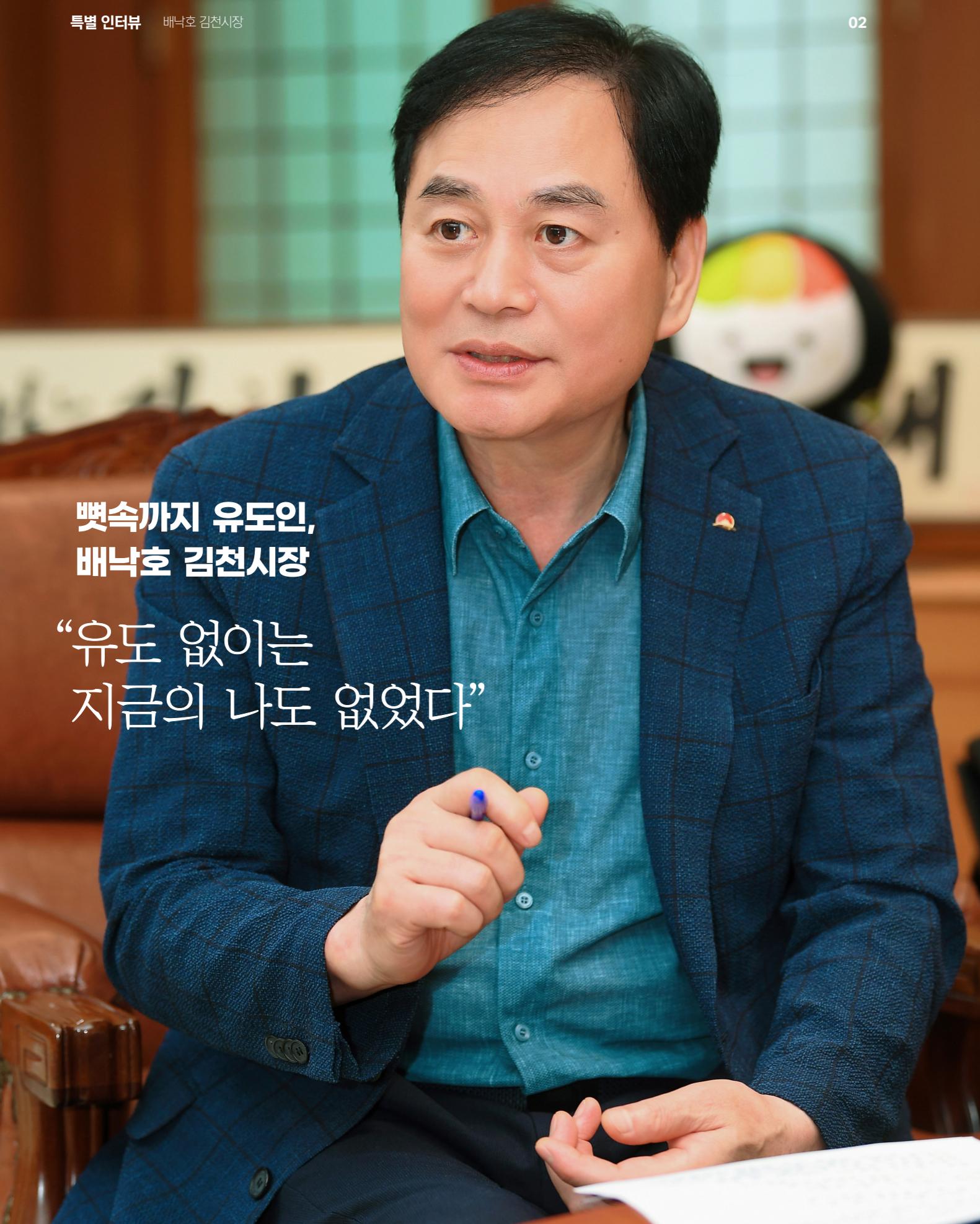
40 세계랭킹 1위의 올림픽 우승 확률은?

NEWS IN JUDO

42 유도 뉴스 및 유도인 동정

RECORD

46 유도 기록실
52 2025년 제3차 정기승단자 명단



뼛속까지 유도인, 배낙호 김천시장

“유도 없이는
지금의 나도 없었다”

02

03

“제게 유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인생의 철학이자
삶의 중심축입니다.” 첫마디부터 유도인다웠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9월 19일 청사 접견실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유도가 내 안에 뿌리내린 존중과
성실, 인내의 정신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배 시장은 뼛속부터 유도인이다. 대한유도학교(지금의 용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은퇴 이후 지역 행정가로 변신한 뒤에도 김천시체육회와 유도회에 몸담으며 도복의 끈을 풀지 않았다. 그와 오랜 시간 잘 알고 지난 양희철 김천시유도회장은 배 시장을 “덕망 높은 인사
일 뿐 아니라 유도, 나아가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지극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런 배 시장은 최근 유도인으로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김천컵 전국
유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김천시 유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한 유도인은 “이번이 첫 개최인데도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대회 운영이 모두 매끄러웠다”며 “장차 메이저 대회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1회 김천컵 전국유도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천은 오래된 유도 전통을 지닌 도시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김
재범을 배출했습니다. 최근 허미미, 김지수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
며 제2의 전성기를 열고 있습니다. 김천컵 전국유도대회는 이런 흐름을
잇기 위한 출발점이자, 김천을 ‘대한민국 유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시장님께 어떤 의미였고,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유도인 출신으로서 김천 유도의 영광을 되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그 부담을 덜고, 유도 발전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었습니다.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해 약 1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스포츠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주는 힘을 다시 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김천컵 대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차세대 유망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김천컵을 전통 있는 전국대회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를 지속 개최해 저변을 넓히고, 학교 유도팀과
동호인 활동을 지원해 지역 유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
습니다. 이를 통해 유도 명문 도시 김천의 위상을 더욱 공
고히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하며 새긴 유능제강 정신, 지금까지도 내 가장 큰 정치적 자산”

정치인으로서 배 시장은 바닥부터 기초를 다진 사례다. 과
거 박팔용 전 김천시장의 정무비서를 지냈고, 시의원(장)
으로도 오래 활동하는 등 정계와 행정계에서 잔뼈가 굵
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에서 그의 입지는 상당하다. 국민
의힘 소속으로 나선 지난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에선
득표율 51.86%를 기록하며 당선되기도 했다.
이처럼 탄탄한 정치 기반을 갖춘 배 시장인데, 특히 스포
츠 행정 분야에선 전국구로 꼽힌다. 프로축구 김천 상무의



새로운 스타를 키우려면 발굴부터 성장,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조기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클럽 연계와 지역 리그 활성화로 실전 경험을 넓힐 것이다.

대표이사를 맡은 경험도 있다. 이런 그는 “나의 시정 철학은 유능제강(柔能制剛)과 닮았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다는 이 정신은 단순한 기술적 원리를 넘어, 삶과 리더십 전반에 통하는 깊은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유도인으로서, 유도가 시장님의 삶과 시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인생의 철학이자 삶의 중심축입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 상대를 존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신입니다. 시정을 이끌며 제가 지향하는 것도 권위가 아닌 시민을 향한 진정성과 책임입니다. 유도가 심어준 존중, 성실, 인내의 정신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유도 정신 가운데 시장님의 행정 철학과 가장 닮은 것은 무엇인가요?

유능제강을 꼽고 싶습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다는 철학은 행정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유연하게 풀어내며, 그 과정을 시정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부드러움 속 강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세가 제가 지향하는 리더십입니다.

유도 경험이 시정을 이끄는 데 어떤 힘이 되고 있나요?

유도에서 배운 가장 큰 자산은 리더십과 소통입니다. 총학생회장 시절 조직을 운영한 경험은 지금 시정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유도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성과를 내는 운동이고, 시정도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을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 역시 유도가 길러준 힘입니다.

“김천시 유도 부흥 위해서라면 작은 힘이라도 기꺼이 보탤 것”

“유도 명문 도시로서 김천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유도 중심지로서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 김천시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와 2012년 런던 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등을 배출한 유도 명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명성이 과거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다. 무엇보다 김천시 자체가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 되어있는 만큼, 선수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 시장도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시장이기 전에 그는 행정가로서 김천시 유도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 최근 김천시 유도 부흥을 위해 다시 두 팔을 걷어붙인 그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김천 내 유도 인프라 발전을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 확보, 장비 지원, 학습 시스템도 갖추



겠습니다. 동시에 시민 누구나 유도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도 교실을 청소년·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인성 교육과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유도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유도의 ‘예시예종’ 정신은 아이와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 협동심을 길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천의 미래인 유·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전하고자 현재 석천중과 중앙고 유도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고의 남녀공학 전환에 맞춰 여성 유도부를 신설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유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제2, 제3의 최민호, 김재범을 육성하기 위한 제언이 있다면요?

새로운 스타를 키우려면 발굴부터 성장,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조기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클럽 연계와 지역 리그 활성화로 실전 경험을 넓힐 것입니다. 우수 선수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훈련 인프라와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며, 정서적·사회적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유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시민 여러분의 동행이 있었기에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김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 가겠습니다. 또한 유도인 여러분께도 존경과 격려를 드립니다. 유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정신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운동입니다. 저 역시 이 가치를 행정에 실천하며, 김천과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⑤



독일 라인루르의 여름,
그들은 다시 매트 위에 섰다.
멈추지 않는 도전, 주저하지 않는 투혼.
허미미의 연속된 황금빛,
김종훈의 다시 한 번의 반란,
그리고 여자 유도의 눈부신 악진.
금메달 네 개, 동메달 세 개.
숫자는 기록일 뿐,
진짜 이야기는 그 안에 있었다.

초여름 부다페스트를 강타했던 울림은,
한여름 이곳 독일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지금,
그 금빛 여정을 다시 마주한다.

허미미·장세윤이 연 문, 김종훈·김하윤이 닫았다 한국 유도, 금 4개·동 3개 힙쓸며 종합 2위

2025 라인루르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한국 유도 국가대표팀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일본(금 7·은 2·동 5)에 이어 종합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여자부는 개인전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챙기며 2015년 광주 대회(금 3·은 2·동 2)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빛나는 성적을 남겼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FISU



첫날부터 금빛 쌍끌이, 허미미·장세윤이 해냈다
한국 유도가 대회 첫날부터 금빛 소식을 전했다. 여자 -57kg급 허미미(경북체육회)와 -52kg급 장세윤(KH필룩스)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표팀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허미미는 대회 2연패에 성공하며 체급 최강자의 위상을 굳혔고, 장세윤은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차세대 주역의 가능성을 선명히 증명했다.

허미미는 초반부터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으로 흐름을 주도했다. 2회전에서 알리시아 마르틴 힐(스페인)을 상대로 소매들어업어치기 절반으로 제압한 뒤, 3회전에서 라우라 칼링거(오스트리아)를 누르기 한판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계속해서 준결승전에서는 오노 모아(일본)와 치열한 승부 끝에 업어치기 유효를 챙겼고, 결승전에서는 로자 기에르티야스(헝가리)를 상대로 누르기와 업어치기로 절반 두 개를 쌓아 한판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대회 우승 이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하지만 내 유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 2연패를 이뤄 더 값지다.” 경기 직후 허미미의 말에는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세윤 역시 안정적인 운영으로 결승에 올랐다. 2회전에서 신디 바인슈타인(몰도바)을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잡은 뒤, 테레자 보드나로바(체코)와 부켓누르 카라불루트(터키)를 연달아 누르기로 제압했다. 이어진 결승전에서는 일본의 후쿠나가 하코와 맞붙었다. 장세윤은 차분히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 지도를 세 차례 끌어냈고, 결국 반칙승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그는 “첫판부터 흐름이 잘 풀렸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은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



은 국제무대 경험에도, 훈련 없는 운영으로 가능성을
분명히 한 하루였다.

한편 남자부에선 메달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 -60kg급 황
혜성(용인대)은 1회전에서 무하마드 삼수도하 수로브(방
글라데시)를 안오금띠기 한판으로 제압했으나, 2회전에서
는 알렉산드루 티르시나(몰도바)의 되치기에 무릎을 꿇었
다. -66kg급 윤현수(한국체대)는 2회전에서 부상으로 기
권패하며 미키타 홀로보로드코(우크라이나)에게 승리를
내줬다. -48kg급 간판 이경하(제주특별자치도청)도 2회
전에서 다이아나 부르케예바(카자흐스탄)에게 허리후리
기 되치기로 유효률을 내주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첫날 두 개의 금메달은 단순한 성과 이상의 의미를 지녔
다. 허미미가 확고한 정상 자리를 다시 입증했고, 장세윤
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한국 여자 유도의 무게감
은 한층 커졌다. 더불어 이들이 대회 첫날부터 올린 금빛
소식은 이번 대회의 흥행을 밝히는 시작점이 됐다.



세계랭킹 2위 이준환, 동메달 끌어올렸지만 “더 높이 오르지 못해 아쉬움 남는다”

한국 유도는 둘째 날 동메달 하나를 더 보탰다. 주인공은 -81kg급 이준환
(포항시청). 그는 기대대로 시상대에 올랐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다.
이준환의 하루는 순탄치 않았다. 2회전에서 레이 칫 라오(마카오)를 상대로
소매를 깊게 잡아끌어 단숨에 메치며 소매들어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뒀다.
그러나 3회전에서는 일본의 아미노 카이토에게 덤미를 잡혔다. 집요한 잡기
싸움 끝에 그라운드로 끌려간 그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누르기를 허용해 끝
내 한판패를 당했다. 세계랭킹 2위라는 기대치에는 분명 아쉬운 결과였다.
하지만 곧바로 반등했다. 패자부활전에서 노디르벡 마블론베르디예프(우즈
베키스탄)를 안오금띠기로 제압하며 흐름을 되찾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는 미국의 요한 실로트를 물이붙였다. 상대의 균형이 흔들린 순간 소매를
깊게 당겨 업어치기를 시도했고, 실로트의 등이 매트에 꽂히자 심판은 곧바
로 이준환의 한판을 선언했다. 깔끔한 마무리였다.

시상대에 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준환은 “메달을 땄다는 점에서
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세계랭킹 2위로 나선 만큼 더 높은 곳을 노렸는데,

스스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털어놓았다. 황희태 대표팀
감독은 “실수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기를 했지만, 결
승까지 이어가진 못했다. 그래도 동메달을 지켜낸 건 충분
히 값진 성과”라고 전했다.

같은 날 -73kg급 안재홍(한국마사회)은 1회전에서 아네
이 두카리치(슬로베니아)를 업어치기 유효로 꺾었으나, 2
회전에서 아르멘 이가이안(개인중립국)에게 허벅다리절기
절반패를 당했다. -63kg급 신채원(순천시청)은 1회전에서
라파엘라 곤살베스(브라질)를 지도 세 차례로 제압했지
만, 2회전에서 다니오카 나루미(일본)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칙패하고 말았다. -70kg급 이예랑(한국체대)은 2연승
으로 기세를 올렸으나, 3회전에서 타이스 피나(포르투갈)
에게 누르기 한판을 내주고, 패자부활전에서도 피단 오겔
(터키)에게 허리후리기 되치기로 패하며 도전을 마쳤다.
이틀간 한국은 허미미와 장세윤의 금메달, 이준환의 동메
달을 합쳐 총 세 개의 메달을 따냈다. 특히 이준환은 지난

해 파리 하계올림픽 동메달과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3년 연속 동메달에 이어 또 한 번 국제대회 시상대에 오르며 한국 남자유도의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111위의 반란’은 계속된다, 김종훈 다시 한번 금 메달

단 하루 만에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 한국 유도가 셋째 날 거둔 성과다. -90kg급 김종훈(양평군청)과 +78kg급 김하윤(안산시청)이 나란히 정상에 섰고, -78kg급 김민주(광주교통공사)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선수단의 시상대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김종훈이었다. 2월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세계랭킹 111위 무명선수의 ‘깜짝우승’을 차지했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량으로 다시 정상에 오르며, 파리에서의 이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김종훈은 1회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아나르벡 이센바예프를 빗당겨치기 한판으로 꺾은 뒤, 2회전과 3회전에서 라도미르 무실(체코)과 나체 페츠니크(슬로베니아)를 각각 업어치기와 안뒤축걸기로 제압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일본의 가와바타 고메이를 상대로 업어치기를 성공시켜 결승에 올랐고, 마지막 상대 엘잔 하지예프(아제르바이잔)와 승부에서는 치열한 공방 끝에

과감히 파고들어 안다리걸기 절반을 얻어내며 금메달을 확정했다. ‘111위의 반란’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무대를 뒤흔든 것이다.

경기 후 김종훈은 “그랜드슬램은 나 자신도 놀란 결과였다면, 이번에는 준비한 만큼 경기가 풀려서 더 만족스럽다. 조금은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황희태 대표팀 감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선수다. 기술뿐 아니라 경기 운영에서도 여유가 생겼다”고 얘기했다.

그런가 하면 김하윤은 한국 여자 유도 최중량급 간판답게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2회전에서 니가르 솔레이마노바(아제르바이잔)에게 안다리걸기 절반 승을 거뒀고, 3회전에서도 아케르케 라마자노바(카자흐스탄)를 안다리걸기 한판으로 꺾었다.

그런 뒤 그는 준결승전에서 자춘디(중국)를 또 한 번 안다리 걸기 유효로 물리쳤고, 결승전에서마저 무코노키 미키(일본)를 상대로 안다리걸기를 성공시키며 절반승을 따냈다. 이날 네 번의 맞대결을 모두 안다리걸기로 마무리한 셈이다.

김민주도 -78kg급에서 값진 동메달을 보탰다. 2회전에서



사라 레이첼 베베리안(미국), 3회전에서는 엠마 크라푸(핀란드)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준결승전에서 베아트리스 프레이타스(브라질)에게 지도 세 차례를 허용해 결승 문턱에서 멈췄다. 그러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비키 베르샤에르(벨기에)를 상대로 업어치기 유효를 따내면서 끝내 시상대에 올랐다.

남자 +100kg급 강자 송우혁(하이원)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으나, 2회전 이슬룸벡 라브산쿨로프(우즈베키스탄)와 승부에서 지도 세 차례를 내주며 반칙패했다. 몇 차례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좀처럼 살리지 못한 채 결국 무대를 내려와야 했다. 셋째 날 성과로 한국은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확보하게 됐다. 김종훈의 상승세와 김하윤의 꾸준한 정상 질주, 김민주의 도약이 더해진 이날은 한국 유도가 대회 초반 기세를 굳히는 확실한 분수령이 됐다.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었다, 단체전 동메달로 완벽한 마침표

앞서 개인전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기록한 대표팀은 마지막 날 단체전 ‘유종의 미’까지 거두며 이번 대회를 총 7개 메달로 마무리했다.

대표팀은 2회전에서 물도바를 4-2로 꺾은 뒤, 브라질과의 3회전에서도 4-1 완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준결승전에서는 일본과 접전 끝에 2-4로 패해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곧바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네덜란드를 4-0으로 제압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는 김종훈, 김하윤, 허미미, 안재홍, 이예랑, 송우혁 등이 출전해 고른 활약을 펼쳤다. 특히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이예랑, 김종훈, 김하윤, 송우혁이 연달아 승리를 따내며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마치며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입상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여자 유도는 특히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허미미, 장세윤, 김하윤이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고, 김민주가 동메달을 보태며 개인전에서만 네 차례 시상대에 올랐다. 2015년 광주 대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다. ☀





“111위의 반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선수라면 누구나 금메달을 목표로 하지만, 솔직히 정말 우승할 줄은 몰랐죠. 주변에서도 다들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최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만난 김종훈(양평군청)이 ‘파리의 기적’을 떠올렸다.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그랜드슬램. 출전 당시 무명이던 그는 이 대회 깜짝 우승 이후 한국 남자 유도 90kg급 기대주로 올라섰고, 스스로도 “파리 그랜드슬램은 내 유도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김종훈은 지난 2월 3일 파리에서 열린 파리그랜드슬램 -90kg 체급 결승전에서 2023 도하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루카 마이수라제(조지아)를 연장 혈투 끝에 업어치기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이 대회 전까지만 해도 세계랭킹이 111위에 불과한 무명 선수였는데, 준결승전에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막심가엘 양부(프랑스)를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키더니, 우승 문턱에서 결국 또 한 번 ‘일’을 내고야 말았다.

IJF도 이 소식에 주목했다. 대회가 끝난 뒤 “김종훈은 세계 111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다. 그동안 그랜드슬램에서 단 1개의 메달도 못 땄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수확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에 김종훈은 “10이 3개나 있어서 우승의 기운이 전부 내게 왔던 것 같다”며 웃었다.

그토록 바란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지만, 김종훈은 스스로를 더 강하게 채찍질했다. “한 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적 내기가 더 어려울 거다. 상대 선수들의 분석과 견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너도 그만큼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황희태 한국 남자 유도 대표팀 감독의 조언에 그 역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덕분일까. 김종훈은 7월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체급에서 또 한 번 금맥을 터뜨렸다. 결승전에서 무려 세계랭킹 3위 하즈 예프 엘잔(아제르바이잔)을 누르고 이룬 쾌거. “파리 그랜드슬램 이후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또

한 번 국제대회 정상에 올라 기쁘고 다행스럽다. 활짝 웃어 보인 그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더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종훈의 ‘역전 드라마’는 숫자로도 나타났다. 9월 17일 현재 16위. 올초만 해도 100위권 밖이던 세계랭킹이 불과 반 년 만에 100계단 가까이 상승한 것. 하지만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손을 저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따는 그날까지, 멈출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1에 유도 입문해 국제대회 우승까지…

“토끼 아닌 거북이 같은 선수 될래요”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부모님이 무사히 졸업만 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웃으며 털어놓은 김종훈의 말은 왠지 묵직하게 다가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중학교까지 만 해도 취미로 유도를 즐기다, 송도고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추천도 아닌, 스스로 결심해 엘리트 선수로 전향한 케이스.

하지만 김종훈은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 번 시작한 이상 국가대표가 되고 말겠다’며 하루가 멀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한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대학 동기인 김민종(양평군청) 등이 일찍이 이름을 알리는 것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나의 날이

온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았다. 늦게 핀 꽃은 더 아름다웠다. 오늘날 김종훈은 현재 한국 남자 유도 90kg급을 대표하는 선수. 그래도 ‘111위 시절’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언젠가 올림픽 매트에 설 날을 그리며, “이미 한 번 이변을 일으켰는데 두 번은 못 일으키겠나. 그날의 간절함과 자신감을 안고 꼭 한 번 더 기적을 메치겠다”고 외쳤다. “늦게 이름을 알렸지만, 그만큼 더 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 주신 대한유도회와 지도자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실업팀 1년 차 양지혁(한국마사회)이
베테랑 김찬녕(하이원)을 꺾고 2025
국제유도연맹(IJF) 울란바타르 그랜드슬램 남자
-66kg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성인 국제대회에 처음 출전해 거둔 성과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IJF

동메달 두고 펼친 집안 대결 '뜨는 해' 양지혁을 주목하라

2025 울란바타르 그랜드슬램

양지혁은 7월 25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대회 이 체급 3위 결정전에서 5분 38초간 헬투 끝에 김찬녕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누르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8강전에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데니스 비에루(몰도바)에게 유효 1개를 허용, 아쉽게 진 양지혁은 패자부활전에서 엘산 아사도프(아제르바이잔)를 제압한 뒤 김찬녕을 만나 입상에 성공했다.

반면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우승 가능성을 엿보던 김찬녕은 결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압두라힘 누트풀로예프(우즈베키스탄)에게 덜미를 잡혔고, 이후 양지혁에게 패하며 빈손으로 대회를 마쳤다.

양지혁은 용인대 시절까지만 해도 유망주 이미지가 강했는데, 올 초 한국마사회 입단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4월 양구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경량급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그런 와중 이번 대회에서 현역 국가대표 김찬녕까지 잡아냈다. 김찬녕은 최근 몇 년간 대표팀을 지낸 강자. 양지혁이 체급 서열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통영초 보성중 보성고 용인대를 나온 양지혁은 유도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와 여동생 두 명이 모두 유도 선수 출신이다. 둘째 양지민(용인대)은 지난해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여자 -63kg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막내 양지언(광명여고)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이던 2023년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같은 체급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다. 세 남매 모두 일찍이 주목받은 재능이다.

양지혁은 아직 성인 국가대표 경험이 없다. 고교 시절 부상으로 태극마크의 꿈을 포기한 아버지를 대신해 올림픽 무대를 밟는 것. 유도를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지 않은 바람이다.

22세 양지혁의 대표팀 도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의 성장세라면 머지않았다. ■

한국유도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7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청주체육관에서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청풍기 대회는 유도 유망주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한 무대로 자리매김하며,
명실상부 한국 유도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됐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누가 잘했나

또 하나의 유망주가 여초부에서 등장했다. 철원초 김가은은 여초부 +57kg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두각을 나타냈다. 김가은은 이번 대회에 앞서 강원소년체전, 양구평화컵,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같은 체급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까지 포함해 개인전 4관왕에 올랐다.

김가은이 소속된 철원초는 개인전뿐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단체전에서도 강원소년체전과 양구평화컵에 이어 3관왕에 오르며, 초등부 최강자의 면모를 확실히 입증했다. 김은솔이 -44kg급에서 준우승, 김노을(-40kg)과 남효주(-52kg)가 각각 3위를 차지하는 등 철원초 유도팀은 전 체급에서 고른 활약을 보이며 개인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남자 일반부 -100kg급 결승에서는 한경진(양평군청)이 김도훈(남양주시청)을 안다리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경진은 지난 7월 열린 양평몽양컵 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후 한경진은 "시즌 초반에는 부진해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많이 노력했다"며 "군청의 전지훈련 등 전폭적인 지원이 선수단 전체의 기량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자 유도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정선아(미산대)는 지난 7월 양평몽양컵에 이어 또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정선아는 여대부 +78kg급 결승에서 용인대 김미경을 상대로 발기술로 유효를 땄으며 우승을 차지,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그는 "꾸준한 훈련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좋은



선수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선아가 소속된 마산대는 여대부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대부 단체전에서도 3위에 오르며 고른 활약을 보였다. 지방 2년제 대학이라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4년제 대학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입증했다.

'강팀의 면모' 경기대·순천시청·경민고의 상승세

경기대는 이번 대회에서 무려 3명의 개인전 우승자를 배출하며 강호의 저력을 드러냈다.

남대부 +100kg급 강재훈은 김윤건(대구과학대)을 발기술 절반과 굳히기 절반을 더한 한판승으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여대부에서도 두 명의 금메달리스트가 나왔다. 윤우미는 -63kg급 결승에서 차아리(용인대)를 상대로 조르기 후 굳히기 한판승, 류소영은 -52kg급 결승에서 이다인(한국체대)을 발뒤축 걸기 한판승으로 물리치며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순천시청은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개인전에서는 박다솔이 -57kg급에서 금메달을, 김지정(-70kg)과 신지영(+78kg)이 은메달을, 양서우(-52kg)가 동메달을 따냈다. 단체전에서는 부산 북구청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그럼에도 실업 최강팀다운 저력을 보여준 대회였다.

고교 명문 경민고는 남고부 단체전에서 시즌 3관왕을 달성하며, 명문팀의 이름값을 지켰다.

4강에서 화성 비봉고를 4-0으로 완파한 경민고는, 청주 청석고를

꺾고 결승에 오른 남녕고를 상대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준과 엄정현이 각각 유효승, 기권승을 거두며 2-0 리드를 잡았지만, 김승기와 흥지민이 각각 이재준, 흥승운에게 패하며 2-2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개인전 -81kg급 우승자인 최성준이 한판승으로 리드를 되찾았으나, 정민국이 지도패를 당하며 승부는 마지막 경기로 넘어갔다. 결국 마지막 주자 차서율이 정지환을 상대로 유효승을 땄으며, 경민고가 극적인 우승을 완성했다.

'청풍기 스타' 문준서, 시즌 전관왕을 향해

문준서(과천중)의 가파른 성장세는 단연 눈에 띈다. 그는 남중부 -90kg급 결승에서 장민서(부평서중)를 굳히기 절반에 이은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제압하며 또 한 번 정상에 올랐다. 이번 청풍기 우승으로 문준서는 올 시즌 6관왕에 등극했다.

그는 올 3월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와 춘계 초·중·고 유도연맹전을 시작으로, 4월 용인대총장기, 5월 양구평화컵과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7월 청풍기까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무패 우승을 기록하고 있다. 184cm, 90kg의 우수한 신체 조건에 성숙해진 기술력이 더해지며, 올 시즌 참가한 6개 대회를 모두 제패한 것이다.

문준서의 목표는 이제 남은 5개 대회까지 모두 석권해 시즌 전관왕(11관왕)을 달성하는 것. 그는 "방심은 금물이지만, 전관왕이라는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며 "아직 부족한 기술은 더 보완해 연승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문준서가 지금 당장 고등부 무대에 올라서도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특히 큰 키에도 불구하고 업어치기 기술에서 강점을 보여, 서구권 장신 선수들을 상대로 국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교 무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문준서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멘탈을 더욱 단련해 어떤 상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과천중 문준서



‘유모사’ 유도 없이 못 사는 사람들

2025 백제왕도 익산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서 만난 사람들

전국의 생활체육 유도 동호인들이 익산에 모였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는 유치부부터 초·중·고등부, 일반부까지 부문별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장을 찾은 이들에게는 승부 이상의 이야기들이 있었다. 유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 그리고 유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의 사연을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대한유도회 제공

‘지도자와 선수’ 1인 2역 소화한 유수민 사범

이번 대회에서는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에게 우수선수상이 수여됐다. 그중 JNS 멀티유도짐 유수민은 여자 일반부 -63kg급 우승을 차지하고, 특기인 발기술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유수민은 4경기 중 3경기를 한판 발기술로 마무리했다. 1회전에서 박완기(파이널유도멀티짐 성북점)를 밟아리 한판으로 제압했고, 2회전에서도 장예원(경운대)을 같은 기술로 꺾었다. 준 결승에서는 최민서(JNS유도체육관 수지)를 안뒤축후리기 한판으로 눌렀고, 결승에서는 박지빈(안산유도체육관)을 상대로 손기술인 업어치기 절반 두 개로 한판승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현재 JNS멀티유도짐에서 사범으로 활동하는 그는 지도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동호인 선수로 전국 무대에 꾸준히 나서며 기량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만세보령배, 명실상주배, 백제왕도배까지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실력을 입증했다. 그는 “뿌듯한 결과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싶다”며 “이번 대회 내내 고생한 JNS멀티유도짐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다. 함께 꾸준히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예고로

‘태극마크를 목표로’ 코리안 드림 꿈꾸는 카자흐스탄 출신 김 예고로 군

최근 유도계에서 다문화 선수를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건너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이 여럿 있다. 고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어머니의 나라 한국으로 건너와 유도선수로서 꿈을 펼치고 있는 김 예고로(15, 김재범유도관) 군도 그 중 한 명이다. 김 군은 이번 대회 남자중학부 -58kg급 결승에서 이승현(우석유도체육관)에 지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 군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하다. 작년 만세보령배 대회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따내 기쁘다”고 금메달을 획득한 소감을 전했다.

김 예고로 군은 카자흐스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다. 그는 유도선수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 1년 전, 한국을 찾았다. 먼저 카자흐스탄에서 유도를 시작했는데, 부모님의 좋은 피를 물려 받아 운동 능력과 힘이 타고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김 군을 지도하고 있는 김재범유도관 김민지 관장은 “힘과 유연성이 좋고 신체밸런스도 잘 갖춰져 있다”며 “사실 1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카자흐스탄에서 배운 유도에 익숙해 한국식 유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식 유도에도 점차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김 군의 한국 유도 적응기를 들려줬다. 그러면서 김민지 관장은 “무엇보다 집중력이 뛰어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좋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끈기도 돋보인다”고 김 군의 장점을 소개했다.

김 군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기술은 어깨로메치기다. 여기에 최근에는 허벅다리 걸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등 새로운 기술 연마에도 한창이다. 그는 “어깨로메치기 기술로 상대를 잡고 빠르게 넘길 때 큰 쾌감을 느낀다”며 “한국에 온 이후로는 허벅다리 걸기가 멋있어서 많이 연습하고 있다. 김민지 관장님께서 섬세하게 지도해주신 덕분에 몸에 잘 흡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재범 관장님께서도 늘 자신있게 기술을 메치라는 말로 자신감을 심어주신다”고 이야기했다.

아직은 한국말이 서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운 김 군이다. 그는 김재범유도관의 김재범 관장처럼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한국에 온 목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한국인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김 군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어눌한 발음이 아닌 또박또박 힘줘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김재범 관장님처럼 멋진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라고 꿈을 밝힌 그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유도를 하는 게 꿈이에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라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❾



우수선수상 유수민



한국유도의 새 지평을 열다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한국유도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한 김천컵 초대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는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간 김천체육관에서 열렸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 전국 각지의 유도인들이 김천에 모여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대회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되짚어본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김천시체육회 제공

체급 올린 한주엽, 부상 딛고 화려한 복귀

국가대표 출신 한주엽(하이원유도)이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한주엽은 남자 개인전 -100kg급 결승전에서 최도훈(부안군청)에 지도승을 땄으며 우승했다. 한주엽은 지난 올림픽 이후 부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꾸준한 재활과 훈련 끝에 체급을 올려 김천컵에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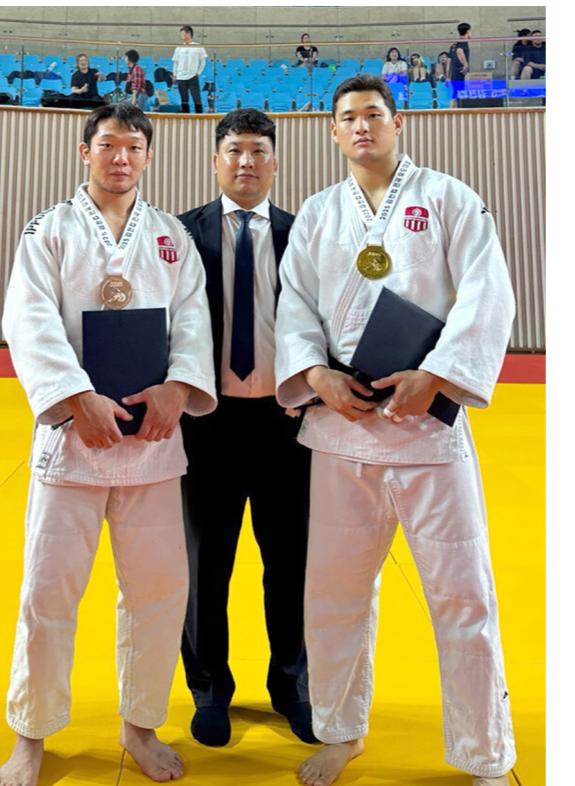
복귀전은 성공적이었다. 체급을 올리고 난 뒤 첫 대회 출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여전히 국가대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4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한주엽은 “체급을 올리고 나서 첫 대회였기에 예상보다 더 힘든 승부였다. 아직 새로운 체급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주엽은 원래 -90kg급에서 활약했으나, 발목 수술 후 증량이 늘면서 체급을 -100kg급으로 올렸다. 체급을 올린 이유는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바뀐 체급에 대한 적응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듯하다. 그는 “-90kg급과 -100kg급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상대 선수들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근력과 체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연마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장기인 업어치기 기술을 계속 가다듬는 한편, 발기술을 더 연마해야 할 것 같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태영, 홈그라운드에서 우승 달성

김천대 경찰소방학과 김태영은 안방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그는 남자 +100kg급 결승에서 백민찬(대구과학기술대)을 상대로 발뒤축걸기 한판으로 승리하며 3관왕에 올랐다. 김태영은 지난 2024 제주컵 대회와 2005년 청풍기 대회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김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김태영은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아낌없이 조언하고, 지도해 주신 양희철 교수님과 박창용 감독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하여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포항시청-순천시청, 단체전 강팀다웠다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포항시청은 유도 남자 -81kg급 세계랭킹 3위 이준환을 비롯해 배동현, 윤재구, 김민석, 채준희, 허준영(플레이 임코치) 등이 출전해 부안군청(3-0), 부산시청(3-0)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맞붙은 팀은 국내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마사회. 그러나 포항시청의 기세는 막강했다. 이준환, 배동현, 윤재구가 활약하며 3-2로 승리, 값진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일반부 단체전은 순천시청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순천시청은 뛰어난 팀워크와 안정된 기량을 바탕으로 결승에 올랐고, 결승에서 강호 포항시청을 상대로 3-2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차세대 유도 스타들의 경쟁 무대

올해 처음 열린 김천컵 전국유도대회는 차세대 유도 유망주들의 실력을 겨루는 중요한 무대로 자리잡았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경북도유도회와 김천시유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300명의 선수와 200명의 임원 및 지도자 등이 함께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대회는 남녀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수 가족과 지역 시민들이 함께한 응원전은 경기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김천컵은 차세대 유도 유망주들이 실력을 다지는 중요한 무대로, 향후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수범·이다인… 차세대 별 쏟아졌다

제41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제41회 교보생명컵 꿈나무 유도대회가 열렸다. 유도 유망주들의 등용문이자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 무대에서 올해는 어떤 별들이 탄생했을까.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본인 제공

리틀 김민종이 떴다!

대구에서 온 유망주 박수범이 누구길래

듬직한 체구에 남다른 민첩성까지 닮아 '리틀 김민종'이라 불린 박수범(대구 지묘초·청춘유도관 연경점)이 교보생명컵을 흔들었다. 남초부 +66kg급에 출전한 그는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전 경기를 한판승으로 마무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구 출신 선수가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관장님과 연습한 대로 하니까 경기가 술술 풀렸다. 허벅다리걸기, 안다리후리기, 허리후리기, 오금대떨어뜨리기까지 자신 있는 기술을 모두 완벽히 구사했다.” 경기 직후 박수범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회를 돌아봤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이미 전국대회에서 다섯 차례 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 익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와 만세보령배를 제패했고, 올해 들어서는 사천우주항공컵과 상주 전국유도대회, 그리고 이번 교보생명컵까지 연이어 정상에 올랐다.

박수범이 유도와 인연을 맺은 건 초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다. 그는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재밌어 보여 부모님을 졸라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관장님이 기초 기술부터 꼼꼼하게 지도해주셔서 머릿속에 쑥쑥 들어왔다. 그러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했다.

하루 종일 체육관에서 땀을 흘린다는 그는 지금은 5학년 선수반을 이끄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정용민 청춘유도관 연경점 관장은 “큰 체구에도 민첩성이 뛰어나고, 기술 이해도와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 순간적인 센스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참 좋다”며 제자들을 칭찬했다. 이어 “기술에 대한 습득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

한 기술을 연구하며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틀 김민종’이라 불릴 만큼 김민종과 닮았지만, 박수범이 꼽은 롤 모델은 의외였다. 일본의 마루야마 조시로와 오노 쇼헤이. “두 선수의 메치기가 너무 멋져서 평소에 영상을 많이 보고 기술을 따라 해 본다. 국내에서는 김민종 형의 플레이를 많이 참고한다”고 밝혔다.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타고난 체격, 빠른 습득력, 강인한 멘탈까지 두루 갖췄다.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훗날 김민종처럼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선수반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가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 소년 체전 금메달을 따고, 먼 미래에는 올림픽 금메달까지 차지하고 싶다.” 그의 눈빛에는 벌써 미래의 목표가 선명했다.

이밖에도 각 체급에서 유망주들의 활약이 빛났다. 남초부 -66kg 급에서는 조유현(인천신현초)이 결승에서 김민건(하남 청하초)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했고, -54kg급에서는 백지우(파주 메이 유도멀티짐)가 정웅(용화초)을 업어치기 절반으로 누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초부 -52kg 결승에서는 김현수(인천 서흥초)가 이보윤(무극초)에게 지도 두 개를 얻어내 우세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동주초 3학년 이다인,
언니들을 울린 금빛 메치기



남초부에서 박수범이 화제를 모았다면, 여초부에서는 동주초 3학년 이다인이 주인공이었다. -32kg급에 출전한 그는 고학년 선수들을 잇달아 꺾고 전 경기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른 그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두 대회 연속 금빛 메치기를 기록하며 ‘대형 꿈나무’로 떠올랐다.



다나카 미키(일본). 한국 여자유도 대표팀이 최근 새롭게 영입한 그의 이름은 국내 팬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정성숙 감독을 보좌할 기술 코치이자 전력 분석관으로 합류한 그는 선수 시절 2010 도쿄 세계선수권대회 63kg급 준우승을 차지한 월드 클래스. 2012 파리 그랜드슬램 같은 체급 결승에서 정다운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인물이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LA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한국 여자유도가 품은 천군만마

‘네와자 스페셜리스트’ 다나카 미키

2015년 매트를 떠난 뒤 그는 곧장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일본은 물론 해외 경험도 풍부하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디오라 켈디요로바 (우즈베키스탄), 2021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 게펜 프리모 (이스라엘) 등이 대표적인 그의 제자.

하지만 그는 올해 돌연 한국행을 택했다. 정 감독과의 오랜 인연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기술 교류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감독님과 처음 연을 맺었다. 저기 제자처럼 쟁쟁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는 그와 정 감독은 지난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재회했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함께 일해 보자”는 기약 없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정 감독이 한국 여자유도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게 되면서, 약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켜졌다. 지도자로서 국제무대

영향력을 이미 어느 정도 쌓아 올린 다나카 코치였지만, “정 감독님의 제안이었기에 한 치 고민 없이 한국으로 왔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대표팀에서 다나카 코치의 공식 직함은 전력 분석관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짚고, 해외 선수들의 경기를 분석해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의 주 업무다. 하지만 역할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그라운드(Newaza·네와자) 기술 전담 코치’라고 소개했다. 네와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누운 기술’을 전수 중이다. 네와자에 정통한 일본 출신답게 현역 시절 그는 세계 정상급 그래플러로 명성을 떨친

바 있다.

그런 다나카 코치는 “과거 한국이 스피드와 힘 모두에서 일본을 압도했다”고 했으나, 지도자의 눈으로 다시 본 한국 여자유도는 다소 냉정했다. “힘은 여전하지만, 속도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는 “한국은 아직 세대교체가 끝나지 않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에 다른 나라에 부족한 편”이라고도 분석했다.

다만 다나카 코치는 “지금 한국 선수들의 재능은 매우 뛰어나다. 특히 김하윤, 허미미, 이현지 등은 잠재력이 아직 100% 발휘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고 있다”며 젊은 선수들의 발전 가능성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여자유도의 색깔도 분명하게 짚었다. 순간적인 메치기 파워, 직선적인 공격, 그리고 변수를 만들어 내는 힘은 오직 한국 여자유도만이 가진 매력이란 것이다. 일본이 탄탄한 기본기를 앞세워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한다면, 한국은 예측 불가의 폭발력으로 판을 흔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 여자유도의 최대 약점?

“잡기 싸움 패턴 단조롭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차세대 주자’들로 이어졌다. 다나카 코치는 김하윤과 이현지 얘기에 화색을 보이며 “두 명이 최종량급임에도 로프를 탈 만큼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며 감탄했고, 허미미에게는 “밸런스가 좋아 약점을 찾기 힘들다”고 엄지를 올렸다. 이뿐 아니라 전력 분석관다운 날카로운 평가도 함께 곁들였는데, 그는 김하윤이 “자기 주도적인 훈련 태도가 다소 부족하다”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김하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런데 스스로는 아직 자신을 ‘유망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알을 깨고 나오려면 스스로가 곧 본인의 선생님이 돼야 한다. 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 혼자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해봐야 하는 단계”라고 했고, 또 허미미는 “빼어난 기량을 갖췄지만, 경기 운영에서 미숙한 면이 있다. 국제무대에서 단순히 경험을 쌓는 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플레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고등학생인 이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시점”이라며 말을 아꼈다. 세 명 모두 “당장 다음 올림픽에서 챔피언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재능”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룰 변화, 유효(Yuko)의 부활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나카 코치는 “유효의 재도입으로 선수들이 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가지면서 경기가 더 역동적으로 변했다. 체력이 관건이 된 셈”이라며, 이는 “세계적인 체력 수준을 보유한 한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변화”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 넘어서야 할 벽도 있다. 다나카 코치는 한국 여자유도의 구조적인 약점으로 단조로운 경기 운영과 부족한 잡기 싸움을 꼽았다. “한국 여자유도는 힘과 스피드, 체력 모두 세계적이다. 기술 하나하나의 완성도 또한 높다. 하지만 경기 운영의 다양함이 떨어진다. 특히 잡기 싸움 패턴이 너무 단조롭다. 잡기 싸움에서 약점을 노출하다 보니 분명 경기를 주도하고도 남을 기량인데 이상하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잡기 능력만 보완돼도 단숨에 성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의 진단은 뼈아프지만 정확했다. 한국 여자유도가 나아가야 할 길도 물었다. 국내 선수들이 국제무대 경쟁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나카 코치는 망설임 없이 “국제대회 경험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금 한국 선수들은 실력에 비해 국제대회 성적이 들쭉날쭉한 면이 있다. 해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냉정하게 따졌을 때 지금 한국 선수들의 국제무대 경험은 같은 나이대의 일본 선수들보다 훨씬 적은 편”이라면서, “젊은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큰 무대에서도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 한국과 일본 선수가 올림픽 결승에서 맞붙는다면 누구를 응원할 것 같냐는 물음에 다나카 코치는 미소를 보였다. 그는 “당연히 한국 선수다. 지도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챔피언이 되길 원한다”며 “감독님과 함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것이 지금 나의 가장 큰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힘주 말했다. ☽

끈끈한 응집력의 결실

첫 질서상 품은 JNS 유도멀티짐을 찾다

올해 처음 제정된 '질서상'의 영광은 JNS 유도멀티짐에 돌아갔다.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서 JNS 유도멀티짐은 경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질서정연한 태도를 보여 대회 첫 '질서상' 수상팀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남겼다. 참가팀 중 단 한 팀만 받는 상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컸다. 대회를 마친 뒤,

JNS 유도멀티짐을 이끄는 박윤기 관장을 만나 수상의 뒷이야기와 생활체육 유도의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JNS 유도점 제공



끈끈함과 형제애, 다섯 지점, 하나로 뭉치다

"시상식에서 우리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상이었기 때문이다. 참가 팀 중 유일하게 받는 상이라 더욱 값지고, 개인상이나 단체상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박윤기 관장은 웃으며 소감을 전했다.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2019년 용인에 첫 유도관 'JNS 유도멀티짐'을 개관하며 엘리트 지도자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로 새 길을 열었다. 7년 이 흐른 지금, 용인 본점을 비롯해 수원, 수지, 오산, 평택까지 총 다섯 개 지점을 둔 탄탄한 유도관으로 성장했다. 지점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지만, 대회장에서는 다섯 지점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

박 관장은 "전국 대회에 나가면 다섯 지점 선수들이 서로 끝까지 응원하며 결속력을 보여준다. 내 경기가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목청껏 응원하는 모습이 JNS 유도점만의 강점"이라고 자랑했다.

이번 질서상 수상 역시 이러한 지도자들의 헌신과 팀워크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점 김원모 유수민 사범, 평택점 강다영·김지호 사범, 수원점 김락용 사범 등 모두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한다. 그 헌신이 대회 외부에 좋은 이미지로 전해진 것 같아 고맙다"라고 공을 돌렸다.

1명이라도 더, 유도를 좋아하게

개원 7년 차인 JNS 유도멀티짐은 현재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전국 각지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다.

박 관장은 "입시반, 선수반, 취미반으로 수업을 나누고, 특히 선수반과 입시반 아이들은 대회 참가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우도록 노력한다"며 "2023년에는 여러 사정으로 단체전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 열리는 전국 대회에서는 다시 팀을 꾸려 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체육 유도의 저변 확대는 박 관장이 평소



JNS 유도멀티짐 박윤기 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최근 대회 현장에서 느낀 열기와 변화를 생생하게 전하며, 목소리에도 열정이 묻어났다.

"생활체육 유도 인구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늘었다. 저처럼 전문 선수 출신들이 유도관을 개관하면서 실력 향상과 함께 유도의 인기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유도에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변화시키는 게 나의 역할"이라며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생활체육 유도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관장은 앞으로도 '원석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가능성을 가진 유망주를 찾아 엘리트 선수로 키우는 것도 유도 발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겠다."

그의 다짐에는 생활체육 유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가 한마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깊이 담겨 있었다.



꿈나무들이 빛은 유도의 내일 임희대 감독이 들려주는 '드림 업 캠프' 후기!



뜨거운 여름, 작은 체구의 아이들이 올림픽파크텔에 모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2025 스포츠 꿈나무 드림-업(Dream-Up)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매트 위에서 부딪히고,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잠시 '작은 국가대표'가 되었다. 그 2박 3일은 유도의 꿈과 함께 바른 인성과 진로를 키워가는 시간이었다. 인솔자로 동행한 임희대 꿈나무 대표팀 감독에게 이번 캠프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임희대 감독 제공

드림-업 캠프는?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스포츠 꿈나무 드림-업(Dream-Up) 캠프가 열렸다. 매년 열리는 이 캠프에 유도 종목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유도회는 참가 기준의 공정성을 위해 전국대회 입상자 중에서 46명의 초등 선수를 뽑아 참가 기회를 제공했다.

꿈나무 선수들은 국가대표 출신 선배와의 만남, 미래 플래카드 제작, 올림픽 레거시 교육, 글로벌 매니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인성과 진로를 함께 설계했다.

특히 한국스포츠과학원과의 협업을 통해 체력 측정 프로그램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도 종목이 드림 업 캠프에 참여한 건 처음이다. 어떻게 캠프에 참여하게 됐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드림 업 캠프 참여 의사를 물어왔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 수락했다. 원래는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려 했지만, 대회 일정이 겹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꾸렸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

다들 너무 만족스러워했고 캠프 참여도 좋았다. 여려모로 뜻깊은 경험이었다. 캠프를 진행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도 '이렇게 호응이 좋은 종목은 처음 본다'고 얘기하더라. 캠프 마지막 날, 한 선생님은 아이들과 헤어질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정이 깊이 들었다.

캠프 프로그램에는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다.

유도 꿈나무들에게 용인대 체육대학은 로망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기 때문이다. 용인대를 직접 찾아가 2시간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과 굳히기와 메치기를 연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마치 자신이



국가대표가 된 듯 자랑스러워했다. 부모님들도 크게 만족했다. 대표 선수들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성심껏 함께해 준 덕분이다.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이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봅슬레이 국가대표 출신 강사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줬다. 비록 지금은 은퇴했고, 종목도 다르지만 운동선수로서 걸어온 경험을 나눠줬다.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참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개별 체력 측정도 진행됐다. 어떤 의미가 있었나?

한국스포츠과학원과 협업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기초·전문 체력 측정을 그대로 실시했다. 초등학생들도 매년 겨울 기본 체력 검사를 받지만, 이렇게 세세한 검사는 처음이었을 거다. 근력·민첩성·유연성·지구력·파워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했고,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피드백까지 제공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캠프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길 바라나?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이런 캠프를 계속 경험해보다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원래는 청소년 대상 캠프였지만, 초등학생들도 집중력과 호응도가 높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매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이런 캠프를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꿈나무 대표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한다. 이런 경험이 결국 더 많은 유망주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각종 꿈나무들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 미래 유망주 배출로 이어지길 바란다. *

“작지만 영리하고 용맹하다!”

여초부 -32kg급 최강자 이다인



나이는 어리고 체구는 작지만, 매트 위에 서면 누구보다 용맹하다. 제2의 허미미를 꿈꾸며 하루하루 매트 위에서 땀을 쏟고 있는 청주동주초 3학년 이다인(10). 유도선수 출신 아버지를 따라 도장에 드나들며 하나씩 기술을 익혔고, 그 시간들이 쌓여 이제는 전국 대회를 휩쓰는 최강 유망주로 성장했다. 아버지와 함께 걸어온 성장 이야기, 그리고 더 큰 무대를 향한 그의 꿈을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본인 제공

이다인은 올해 여초부 -32kg급에서 사실상 ‘넘버원’이다. 교보생명컵, 청풍기, 추계연맹전까지 세 대회를 잇달아 휩쓸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단 한 판도 내주지 않았고,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끝냈다. 키 큰 고학년 선수들까지 차례로 꺾어낸 ‘퍼펙트 승리’였다.

“올해 세 개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정말 기쁘다. 경기 전에는 떨리고 긴장도 됐지만, 선생님·코치님·부모님·친구들 덕분에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다인은 말할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그를 지도하는 김영호 동주초 코치는 “어릴 때부터 다인이를 지켜봤다”며 “주특기인 업어치기를 비롯해 손발을 자유롭게 쓰고, 다양한 기술을 펼칠 줄 아는 재목”이라고 평가했다.

이다인의 성장은 뛰어난 집중력과 강한 승부근성, 그리고 피나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김 코치는 “다인이가 여름방학 동안 메치기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습했고, 업어치기에 변형 기술을 더해 반복 훈련했다”며 “그런 꾸준한 노력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다인의 유도 여정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필연적으로 시작됐다. 그의 아버지 이성규 관장은 유도선수 출신으로, 현재 청주 백곰유도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 5단 자격을 갖춘 그는 용인대를 졸업한 뒤 용인시청과 양평군청 실업팀에서 활약한 경력을 지녔다. 이다인은 다섯 살 무렵부터 아버지 도장에서 매트를 뒹굴며 유도를 몸으로 익혔다.

“아빠를 따라 처음 유도를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다”는 이다인은 지금도 그때 느낀 즐거움 덕분에 매트 위에 서면 설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도는 이기는 재미가 있다.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면 기분이 정말 좋다. 양팔 업어치기를 가장 좋아한다. 경기 중 상대가 걸려 넘어가는 순간이 가장 짜릿하다. 새로운 기술로 이것을 때도 뿐듯하다”고 유도의 매력을 전했다.

아버지의 영향 덕분인지, 이다인은 또래보다 유도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 습득력이 빠르다.

김 코치는 “연습에서 배운 기술을 실전에서 과감하게 시도하려는 적극성이 돋보인다”며 “유도를 이해하는 속도도 빠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유도를 하며 기술을 일찍 익힌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다인은 지금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가 꿈은 롤모델은 일본의 유도 스타, 아베 유타다. 그는 “아빠도 저도 유타 선수를 좋아한다. 자기 전에 늘 영상을 보고 자세를 따라 한다”며 “유타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이기고 싶다. 언젠가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고, 아빠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매트 위 작은 소녀의 꿈은 이미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

• “아빠 목에 올림픽 금메달 걸어줄거예요” . 이성규·이다인 부녀의 꿈

이다인과 아버지 이성규 관장은 그야말로 ‘유도 가족’이다. 매트 위에서는 스승과 제자로, 매트 밖에서는 누구보다 끈끈한 부녀로 함께한다. 평소 이다인의 ‘아빠 사랑’은 각별하다.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내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빠에게 유도를 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다. 기술뿐 아니라 예의와 태도, 마음가짐까지 배울 수 있어서 더 좋다”며, “아빠 덕분에 유도에 대한 애정이 커졌고,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 언젠가는 아빠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성규 관장도 딸이 어린아이 시절 유도장 매트를 뒹굴던 모습을 떠올리며 세월을 실감했다. 그는 “다인이가 태어난 해에 도장을 차렸다. 사실상 도장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뛰어놀고 구르고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잠시 회상에 잠긴 그는 “그때는 유도를 계속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만큼 자란 걸 보면 참 대견하다”고 웃었다.

지도자로서 바라보는 딸의 성장도 남다르다. 이 관장은 선수 이다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인성의 변화까지 함께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이번 추계 대회에서는 큰 기술뿐 아니라 발기술과 굳히기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무엇보다 유도를 하면서 성격도 밝아졌고, 예의도 한층 더 잘 갖추게 되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주는 게 더 큰 바람이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진심을 전했다.





유도를 더 가깝게

웃음과 땀을 담는 유튜브 '홍관장 TV'

홍지환 관장을 만나다

청춘유도관 구미점을 운영하는 흥지환 관장은 약 1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다.

350여 명의 관원을 둔 유도관을 운영하며, 일상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자신의 채널 '홍관장 TV'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7년째.

그는 관원들과 함께하는 콘텐츠로 유도의 매력을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본인 제공

유도관의 소소한 추억을 기록하다

2020년 5월 18일, ‘유도의 첫 걸음, 그야말로 걸음!’이라
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홍관장 TV의 첫 게
시물이자, 유도 관련 유튜브 채널의 시작을 알린 순간이었
다. 지금이야 유도 유튜브나 블로그가 제법 흔하지만, 불
과 몇 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공백을 가장 먼저
채운 사람이 바로 홍지화 관장이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묻자, 홍 관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2019년에 유도관을 열었는데, 1년 만에 코로나19가 닥쳤다. 쉬는 기간 동안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내 이름을 걸고 채널을 개설했다. 처음엔 단순히 유도관 홍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도관의 순간들이 추억이 되고 기록이 되더라. 유도를 그만둔 친구들도 예전 영상을 보면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곤 한다.”

그의 말처럼 홍관장 TV는 유도관의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가 중심이다. 초창기에는 ‘질보다는 양’에 집중해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담았고, 쇼츠와 릴스 형태로 꾸준히 언로드하며 관심을 끌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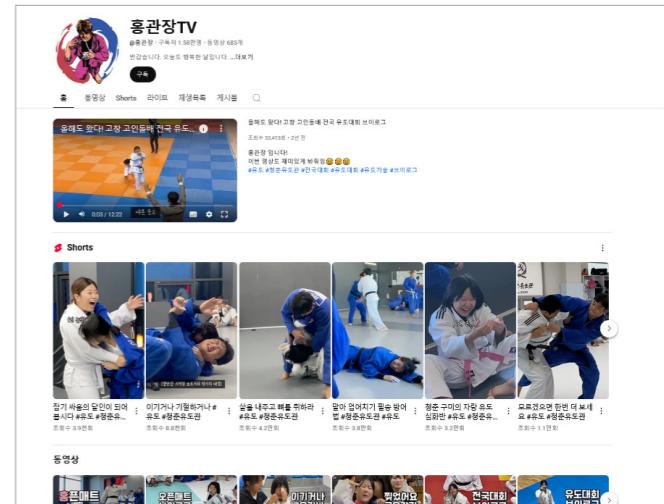
홍 관장은 “처음에는 유도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담으려고 했다. 수업 중에도 재밌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카메라를 들었다. 특히 대회에 나갈 때는 브이로 그에 더 신경을 썼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 유도 장면만 보여주기보다는 수학여행 가는 느낌으로 밥 먹고, 노는 모습까지 담아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려 했다”라고 덧붙였다.

관원들과 함께 만드는 유통브

9월 10일 기준, 홍관장 TV에는 682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기억에 남는 콘텐츠를 묻자 홍지환 관장은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기억”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그가 강조하는 채널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요즘 유도 유튜브 채널이 정말 많다. 우리보다 콘텐츠를 더 잘 만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관원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채널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다(웃음) 영상을



찍을 때 늘 혼자가 아니라, 관원들과 함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 계성고와 동의대를 거쳐 실업팀 양평군청에서 선수로 활약했던 흥 관장은 이제 유도관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유도 인구를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유튜브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지만, 흥관장 TV는 특히 입문자들이 쉽고 꿈꼼하게 배울 수 있는 채널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흥 관장은 “유도는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거칠고 부상이 많은 종목으로 보여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런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위해 입문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거칠고 화려한 것보다는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다. 생활체육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방향성을 전했다.

유도의 문턱을 낮추는 기록

그의 신조는 단순하다.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인터뷰 말미에도 그는 이 말을 거듭 강조했다. 다치거나 아프면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유소년에게는 안전 속에서 즐거운 기억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유트비로서 목표도 분명하다

“목표는 딱 하나다. 이런 채널을 통해 생활체육 유도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 걸로 충분하다. 꼭 홍관장 TV가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는 유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카메라에 담겠다.” 생활체육 유도를 향한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었다. 22



“올해 여고부 신인왕은 나야 나” 경기체고 장혜윤 VS 광주체고 김하은

여자 고교 유도에 시선을 사로잡는 새 얼굴이 등장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주인공은 -70kg급의 장혜윤(경기체고)과

+78kg급의 김하은(광주체고).

둘은 입학 첫해부터 잇달아 시상대를 밟으며

여고 유도의 새 흐름을 만들고 있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선수 제공

체전 우승 노리는 새내기

국가대표 핏줄은 뜻 속여

장혜윤은 8월 28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53회 추계 전국초·중·고 유도연맹전 여자 고등부 무제한급 결승에서 예서진(울산스포츠과학고)을 허벅다리걸기 한판승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6월 제96회 YMCA 전국 유도대회, 제4회 양평몽양컵 전국유도대회에 이어 시즌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차세대 국가대표로 발돋움을 예고했다.

장혜윤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자 고등부 -70kg급은 사실상 신주은(광영여고)의 독무대였다. 신주은은 5월 제29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서 같은 체급 선수 중 고교생으로는 유일하게 입상(동메달)에 성공하며 '체급 절대 강자' 이미지를 굳혔다. 그러나 5월 이후 고교 무대에 적응을 마친 장혜윤이 꾸준히 시상대를 밟으면서 흐름이 달라졌다. 양평몽양컵 8강전에서는 오히려 신주은이 장혜윤에게 유효승을 내주며 올해 첫 노메달을 기록하는 이변도 있었다.



장혜윤은 중학생 시절부터 남녀를 통틀어 동 나이대 최고 재능으로 꼽혀왔다. 170cm가 넘는 장신에 긴 팔다리까지 갖춰 신체 조건만 따지면 서양 선수들 못지않다는 평가다. 게다가 부모가 운영하는 도장에서 일찍부터 유도를 배운 덕분에 경력 대비 기술 완성도도 뛰어나다.

장혜윤은 ‘국가대표의 딸’로도 잘 알려져 있다. 어머니는 1995년 당시 고교생으로는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단 선수이자 현재 대한유도회 국내 1급 심판으로 활동 중이 이지미 심판. 장혜윤의 목표는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

당장은 10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은 고향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정도운 경기체고 감독은 “대진운도 무난해 충분히 금메달을 노려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회 역시 장혜윤과 신주은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혜윤이 신주은을 꺾고 ‘새내기의 반란’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교 진학 후 뒤바뀐 평가

김하은의 내일을 기대하라

장혜윤이 어린 시절부터 촉망받던 기대주였다면, 김하은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체급 절

대 강자 최보민(경기체고)의 그림자에 가려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고교 진학 첫해인 올해, 그는 지난해와 비교해 뚜렷한 기량 향상을 보이며 승승장구 중이다. 7월 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여자 고등부 +78kg급 결승에서는 인천체고 차은서를 지도승으로 꺾고 고교 무대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횟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꾸준함에서는 오히려 장혜윤보다 앞선다는 평가다. 시즌 개막전인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은메달을 시작으로, 올해 출전한 대부분의 대회에서 시상대를 밟았다. 현재 이 체급 최강자인 도개고 이승진을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적수가 없는 수준이다. 김하은은 ‘괴물 여고생’ 이현지(남녕고)와 함께 한국 여자 유도 최중량급의 부흥을 이끌 차세대 재목으로 꼽힌다.

최중량급답게 공격 성향이 강한 김하은은 허리기술과 발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기본기가 탄탄하다. 상대 기술을 방어하는 능력도 뛰어나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장점이 있다. 다만 타고난 운동신경에 비해 신체 조건이 다소 아쉽다. 김하은 역시 175cm로 작은 키는 아니지만, 180cm가 넘는 이승진이나 이현지와 비교하면 신장 차가 크다. 성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장신 선수 공략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다가오는 전국체전은 김하은에게 그간의 성과를 증명할 무대이다. 견문을 넓힐 중요한 기회다. 그는 “첫 체전이라 긴장되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체전에서 김하은이 장혜윤과 함께 ‘1학년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보다 화려하고 박진감 넘칠 LA,

2025 유도 룰
어떻게 바뀌었나

국제유도연맹(IJF)이 분주하다.
2028 LA 하계올림픽 예선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을 앞두고,
경기 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 중이다.
2월 파리 그랜드슬램과 6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는 바뀐 규정을 시험
적용했고,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부 수정 과정을 거쳐 내년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보는 재미, 기술의 묘미,
박진감 넘치는 유도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IJF



1

유효 점수 부활

2016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유효가 올해부터 다시 점수로 인정된다. 득점 체계를 기존 한판-절반에서 한판-절반-유효로 한층 세분화한 것이다. 세 가지 점수 중 가장 얻기 쉬운 것이 유효다.

상대 신체 측면을 매트에 닿게 하거나 5초 이상 굳히기에 성공하면 유효를 얻는다. 경기 중 나온 유효는 계속 누적되지만, 여러 개를 얻어도 절반으로 상향되지는 않는다.

유도계에서는 “유효 부활로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경기 박진감이 훨씬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머리 접촉 허용

선수 보호 차원에서 금지됐던 머리 접촉도 달라졌다. 공격자든 수비자든, 이제 머리가 매트에 닿아도 반칙이 아니다. 단, 유소년(Cadet) 경기에서는 예외 없이 전면 금지된다. 성장기 선수들의 부상을 막기 위함인데, 심판은 상황에 따라 시도만으로도 지도를 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머리 사용을 권장하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반칙패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

3

그립 범위 확대

이제 도복 상의는 전부 잡을 수 있다. 소매 안쪽, 띠 아래 치맛단까지 허용됐다. 하지만 소극적 방어용으로 악용하면 지도다.

다리 그립도 일부 가능해졌다. 선 자세에서 공격자 또는 수비자가 상대 바지 안쪽 하단을 잡는 건 여전히 반칙이지만, 누운 자세라면 허용된다. 이외 서거나 누운 상황에서 손이나 팔로 상대 다리를 잡거나 거는 동작은 여전히 지도 대상이다.

2



5

베어허그 말아업어치기 추가

최근 국제대회에서 베어허그(Bear hug)를 구사하는 선수가 부쩍 늘었다. 서 있는 상태(Tachi-waza)에서 두 손으로 상대를 안거나 들어 메치는 동작이 올해부터 허용됐기 때문이다. 베어허그는 익히기 쉽고 실전성도 높아 앞으로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손이나 팔이 맞닿아 동그라미를 그리는 형태라면 지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 손을 사용하되, 팔과 팔은 서로 붙지 않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민호 안바울 등 국내 선수들이 즐겨 써 한국식 업어치기 (Korean seoi-nage)로 불리던 말아업어치기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상 위험이 큰 기술인 만큼 유소년 경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맞잡기 30초 제한

잡기 싸움(Kumi-kata·맞잡기)에 시간 제한이 생겼다. 긍정적 진전(Positive Progression)이 있으면 최대 30초까지는 허용된다. 그러나 그 안에 유의미한 기술 시도가 없으면 두 선수 모두에게 지도가 선언된다. 일부 긍정적 진전이 있더라도 30초 안에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소극적 운영으로 판단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 도입으로 경기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

기타 변경 사항

메치기 과정에서 부상 위험이 큰 꺽기 기술을 함께 시도하면 즉시 반칙패가 선언된다. 하지만 위험성이 작거나 수비자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지도로 완화된다.

또 선 자세에서 메치기 과정 없이 곧바로 꺽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지도에 해당한다.

경기 구역 문제도 손질됐다. 경기 중 선수가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면 심판은 지도 대신 ‘그쳐(Mate)’ 선언으로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기술 유도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도 세부 규정은 더 바뀔 수 있다. 방향은 모두 같다. 보는 재미가 있는 유도. IJF가 LA 올림픽을 앞두고 내건 핵심 기치다.

한국은 IJF의 이 같은 변화를 반기고 있다. 바뀐 규칙 대부분이 힘보다는 기술 유도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 대한유도회 상임심판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 유도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며 “체력과 섬세함을 두루 갖춘 한국 유도에는 큰 호재”라고 내다봤다. ☀





세계랭킹 1위 10명 중 7명은 올림픽 우승에 실패했다

세계랭킹은 선수들의 최근 성적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 그러나 올림픽 무대에서는 이 수치가 자주 무너진다. 최근 네 차례 올림픽(런던·리우·도쿄·파리)에서 열린 56개 체급 가운데 세계랭킹 1위가 금메달을 차지한 경우는 단 16번. 확률로는 28.6%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10명 중 7명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IJF

세계랭킹 1위는 대개 해당 체급에서 가장 꾸준히 성적을 낸 선수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올림픽은 단판 토너먼트. 누적된 포인트가 아닌 단 하루, 단 몇 분의 승부로 성패가 갈리곤 한다.

프랑스 유도 영웅 테디 리네르(+100kg급)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에 그쳤고, 일본 여자 유도 전설 후쿠미 도모코(-48kg급)는 2012 런던올림픽 '노메달'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았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선 같은 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김민종(+100kg급)이 당시 세계랭킹 7위 리네르에게 금메달을 내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세 명 모두 '세계랭킹 1위' 자격으로 나선 대회였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무대 앞에서는 이 역시도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세계랭킹 2위의 입상 확률이 1위보다 높다고?

입상 확률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랭킹 1위가 메달권에 든 비율은 62.5%. 즉, 10명 중 4명은 시상대에도 오르지 못했다. 도쿄올림픽 -66kg급에서는 당시 세계랭킹 1위 마누엘 룸바르도(이탈리아)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2위 안비울에게 무릎을 꿇었으나, 반대로 4위였던 아베 하후미(일본)는 시상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다. 서로 랭킹과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파리올림픽 당시 세계랭킹 3위였던 이준환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같은 체급 최강자 마티아스 카세(독일)를 잡아낸 것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다.

세계랭킹 1~4위로 범위를 넓히면 금메달 확률은 66.1%까지 오른다. 4명



중 1명은 정상에 선다는 계산이다. 세부적으로는 1위가 28.6%로 가장 높았지만, 4위의 우승 확률(14.3%)이 2위(12.5%)와 3위(10.7%)를 앞서는 등 반전 요소도 있었다. 입상 확률에서는 2위(69.6%)가 1위(62.5%)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높은 순위일수록 성적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올림픽 앞에서 소용없다.

세계랭킹 29위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다크호스의 약진이다. 최근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33.9%는 세계랭킹 5위 이하 선수들이 차지했다. 3번 중 1번은 '언더독'이 역사를 바꾼 셈이다. 2016 리우올림픽 -66kg급에서 세계랭킹 26위에 불과했던 파비오 바실레(이탈리아)는 기적 같은 금메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기적의 희생양은 공교롭게도 안비울이었다). 무명에 가까운 그는 올림픽 이후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또 런던올림픽 -60kg급에서는 커리어라곤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이 전부였던 아르센 갈스티안(러시아)이 결승까지 치고 올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이처럼 올림픽은 랭킹 그 자체보다 누가 당일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리우의 역설, 그리고 런던의 반전

한국 유도도 랭킹의 허상 앞에서 빼아픈 경험을 했다. 리우올림픽 당시 대

표팀은 -60kg 김원진, -66kg 안바울, -73kg 안창림 등 3개 체급에서 세계랭킹 1위를 보유했다. 대회 전 "금메달 2~3개는 무난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금메달은 커녕 은메달 1개(안바울)에 그쳤고, 김원진과 안창림은 조기 탈락했다. 또 세계랭킹 1~4위로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올림픽 입상 확률은 69.2%로, 세계 평균(58.0%)을 크게 웃돌았지만 금메달 확률은 7.7%에 불과했다. '결정력 부족'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언더독의 반란'도 있었다. 2012 런던올림픽 -90kg급에서 세계랭킹 15위였던 송대남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투혼과 집중력으로 정상에 오른 그는 여전히 한국 유도의 상징적 반전 드라마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이 보는 랭킹의 함정

왜 세계랭킹은 올림픽에서 자주 무너질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는다.

첫째, 대진 운이다. 단판 토너먼트에서는 초반에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면 상위 랭카라도 탈락할 수 있다. 유도는 선수와 선수 간 '상대성'이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컨디션이다. 랭킹은 평균을 반영하지만, 올림픽은 단 하루의 '최고치'를 요구한다. 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일수록 종이 한 장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 마련이다.

셋째, 전략적 랭킹 조절이다. 황희태 한국 남자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까다로운 상대를 피하려고 랭킹을 일부러 조절하기도 하고, 출전이 확정된 베테랑은 랭킹 경쟁보다 몸 관리에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며 메달은 종종 '제 주인'이 아닌 다른 이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다.

숫자 그 이상의 무대, 올림픽

세계랭킹은 꾸준한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올림픽에서의 금빛 엔딩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매트 위에서의 단 하루, 단 한 순간의 집중력과 흐름이다. 그래서 올림픽은 언제나 이번과 반전, 드라마를 낳는다. 세계랭킹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올림픽의 주인공은 결국 매트 위에서 결정된다. 참가자 모두가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이기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터. 그곳이 바로 올림픽이다. ■



대한유도회 제39대 집행부 제2차 이사회가 8월 25일 오전 11시, 올림픽회관 신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는 재직 이사 38명 중 29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3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 서면 결의 결과,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대회 및 훈련을 포함한 기타 사업 결과 등 주요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심의 안건으로는 각종 규정 개정(안), 2025년도 사업 및 예산 신규 편성, 전국대회 임원 수당 인상(안), 공인심의 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상(안) 등이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2025년도 제3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25년도 제3차 정기승단심사가 8월 25일에 실시됐다. 이번 승단심사에서는 7단 5명을 포함해 총 2,952명이 합격했다.

승단인원

7단	5명	4단	44명	초단	1,087명
6단	5명	3단	109명	소년3단	20명
5단	10명	2단	495명	소년2단	219명

2025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실시

2025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검정시험이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충북, 청주 유도회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실기·구술 검정시험에는 530명이 응시해 384명이 합격했다.

합격인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01명	유소년스포츠지도사	78명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명	노인스포츠지도사	55명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48명		

후보선수 국외 전지훈련, 체코에서 진행

2025년도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이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체코에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지도자 3명과 선수 14명, 총 17명이 참가했다. 선수단은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5 유러피언컵 프리하 국제 청소년 유도대회에 출전했으며, 이어 7월 7일부터 9일까지 님부르크에서 합동훈련캠프를 실시했다.

참가자명단

전임감독(1명)	김현태(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전문지도자(2명)	현후익(남병고), 한기쁨(서울체고)
선수(14명)	오상우(용인대), 이준현(용인대), 전민형(신월원고), 고호령(한국체대), 최재민(용인대), 박세민(용인대), 김민준(용인대), 유슬기(선문대), 신유미(광명여고), 박채령(인천체고), 양지언(광명여고), 고미소(선문대), 이채민(인천체고), 이해빈(용인대)



2025 한일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 초청사업 실시

2025년도 한일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 초청사업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간 진천선수촌에서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 후보선수 27명(지도자 3명, 선수 24명)이 참가했으며, 초청된 일본 청소년 선수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참가자명단

전임감독(1명)	김현태(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전문지도자(2명)	현후익(남병고), 김주연(선문대)
선수(24명)	손예원(서울체고), 이유진(경기체고), 유슬기(영서고), 유하늘(영서고), 신유미(광명여고), 박지호(주산산업), 이소윤(도개고), 배슬비(금곡고), 박채령(인천체고), 김민재(경기체고), 이채경(서울체고), 고은아(용인대), 양지언(광명여고), 송다영(도개고), 홍다인(인천체고), 정예담(용인대), 강재형(충남체고), 고미소(남병고), 김고은(남병고), 강수민(광명여고), 이승주(도개고), 이해민(인천체고), 이해빈(용인대), 이승진(도개고)



2025 한일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 초청사업 실시

2025년도 하계 전국 심판·지도자 강습회 실시

2025년도 하계 전국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강습회에는 207명이 수료했다.

강습회 수료자명단-86명

서울(31명)	이정원, 원유철, 신영균, 김덕영, 최용배, 박경준, 이종록, 이상진, 이승엽, 신재천, 서해경, 류근, 최재우, 채승원, 성욱진, 최주필, 정해진, 최성호, 오재우, 최민협, 이영록, 소미, 이승준, 정수덕, 박명우, 장지영, 장대호, 이규정, 이성준, 이진석, 김수홍
부산(4명)	전영환, 안치국, 김현성, 서준호
대구(3명)	황상훈, 박종원, 유지연
인천(1명)	김홍선
광주(5명)	배종용, 김대현, 조미연, 김광훈, 최은현
대전(3명)	김백술, 허재영, 정현광
울산(1명)	하홍남
세종(4명)	유동훈, 이대성, 임호준, 김민지
경기(12명)	이상봉, 백경열, 송일훈, 정경일, 서제승, 양다솜, 김찬우, 원지훈, 안상곤, 최호정, 원지우, 최용석
강원(5명)	김건희, 김성익, 천주연, 지윤서, 이기태
충남(3명)	김은영, 문소연, 이은혜
충북(2명)	고탁현, 원철규
전남(3명)	김성진, 박현수, 이상현
전북(2명)	문용범, 신윤영
경남(3명)	허교영, 조영진, 김이한
경북(3명)	고용희, 박지원, 김효준
제주(1명)	강종건

1급 심판 합격자명단 총 36명

김이한, 김성민, 장지영, 서준호, 문소연, 박종원, 김효준, 고탁현, 박현수, 원철규, 지윤서, 김보은, 이성준, 홍은영, 김영호, 문용범, 박지원, 최은현, 소미, 임호준, 정현광, 강종건, 김홍선, 이영록, 천주연, 서제승, 김홍선, 노소진, 전영환, 유동훈, 양다솜, 이기태, 김은영, 황상훈, 김성진, 이은혜

1급 지도자 합격자명단 총 80명

박훈식, 김선중, 이규정, 원철규, 김태현, 소미, 이승진, 임호준, 원지훈, 박종원, 김현성, 하지수, 정영주, 이승규, 유대영, 최은현, 이성준, 서준호, 김효준, 고탁현, 최재우, 성규진, 김태현(95), 최호정, 성욱진, 정호재, 박지원, 이천동, 원지우, 신수환, 양다솜, 문소연, 김주호, 고용희, 한정희, 이진석, 이경일, 강원민, 김종부, 지윤서, 이승준, 김시옹, 김은영, 이은혜, 김찬우, 김진상, 김이한, 원영모, 최주필, 박윤선, 김성민, 김덕유, 김건희, 최민현, 천주연, 이규영, 김형진, 권희창, 문용범, 김경덕, 강동건, 조미연, 황태원, 이동준, 김지윤, 하홍남, 이창민, 박경준, 이동현, 김성익, 최승호, 유지연, 정경일, 정대호, 조재현, 이기태, 김홍선, 한성만, 최재열

1급 KATA심판 합격자명단-3명

정수덕, 허재영, 안상곤

2025년도 후보선수 이하 우수선수 합숙훈련 실시

2025년도 후보선수 및 이하 우수선수 합숙훈련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술 및 체력 강화와 함께 인권교육, 도핑 방지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됐다.

후보선수 합숙훈련

훈련기간: 2025년 7월 25일~8월 7일(13박14일)

훈련장소: 경북 구미복합스포츠센터

지도자(7명)	김현태(후보선수 이하 전임지도자) 김태운(해동고 감독) 현후이(남녕고 코치) 홍승한(한국체대 감독) 한기쁨(서울체고 코치) 김주연(선문대 감독) 오세희(트레이너)
---------	--

남자 22명	-55kg 조연우(경민고) 이은강(한국체대)
	-60kg 오상우(용인대) 윤주승(용인대) 염기준(경기대)
	-66kg 전민성(신철원고) 이준현(용인대) 이재준(남녕고)
	-73kg 전민형(신철원고) 고지운(한국체대)
	-81kg 박성현(용인대) 고호령(한국체대) 허정재(용인대)
	-90kg 최재민(용인대) 고호령(한국체대) 허정재(용인대) 심재윤(주신산업고)
	-100kg 박세민(용인대) 하은강(용인대) 임강호(한국체대)
	+100kg 김민준(용인대)
	-45kg 손예원(서울체고) 이유진(한국체대) 유슬기(선문대) 유하늘(영서고)
	-52kg 신유미(광명여고) 박지호(주산산업고) 이소윤(도개고) 배슬비(금곡고)
여자 23명	-57kg 박채령(인천체고) 김민지(한국체대) 이채경(서울체고)
	-63kg 고은아(용인대) 양지연(광명여고) 송다영(한국체대) 흥다인(인천체고)
	-70kg 정예담(용인대) 강재형(충남체고) 고미소(선문대)
	-78kg 김고은(남녕고) 강수민(광명여고) 이승주(도개고) 이채민(인천체고)
	+78kg 이승진(도개고)
	-45kg
	-52kg
	-57kg
	-63kg
	-70kg



청소년대표 (1차) 합숙훈련

훈련기간: 2025년 7월 26일~8월 7일(11박12일)

훈련장소: 경북 구미복합스포츠센터

지도자(8명)	김대봉(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조상훈(은양중 코치) 성문기(영양초 코치) 최혁진(제주도체육회 코치) 정다운(제주유도회관 코치) 소미(서울체중 코치) 김민영(칠원여중 코치) 김시진(트레이너)
남자 26명	-45kg 이준(부평서중) 윤준혁(보성중) 김보민(진량중) 김주원(도개중) 이선(해동중)
	-51kg 이현(부평서중) 조부건(사북중) 최연성(청라중)
	-55kg 노윤(청라중) 김유천(부평서중) 문장원(플라이유도센터)
	-60kg 송세현(대천리중) 박현우(경민중) 이동재(서울체육중)
	-66kg 정의성(신현중) 문준서(보성중) 김서준(보성중)
	-73kg 박지호(보성중) 김세윤(송도중)
	-81kg 양태민(보성중) 최이삭(무극중) 양준훈(아라중)
	-90kg 문준서(과천중) 김재후(보성중) 이원준(옥천중)
	+90kg 김형주(태장중)
	-42kg 강민하(종암중) 손민서(옥천여중) 김슬아(사북중)
여자 22명	-45kg 박가은(원당중) 조은설(사북중)
	-48kg 안혜원(종암중) 이보윤(신현여중) 정아연(서울체중)
	-52kg 권세현(서울체중) 조서희(서울체중) 김예빈(신현여중)
	-57kg 백서영(종암중) 손예슬(용운중) 김소연(울산스포츠과학중)
	-63kg 광유주(플라이유도센터) 이혜원(안락중)
	-70kg 이서현(플라이유도센터) 정아인(도개중) 선에스더(정북정무스포츠클럽)
	+70kg 이서하(용운중) 임수경(금곡중) 심지민(연무여중)
	-45kg
	-52kg
	-57kg



꿈나무선수 학계합숙훈련

훈련기간: 2025년 7월 27일~8월 9일(13박14일)

훈련장소: 강원 철원유도회관

지도자(8명)	임희대(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강명덕(제주시유도회) 권성훈(신흥초) 이성균(문선초) 신슬기(기남초) 조아라(신철원초) 홍진주(흥덕초) 조국(세이코초) 토털케어솔루션
남자 21명	-36kg 이의리(송남초) 하정후(김재범체육관) 배서준(사북초)
	-42kg 정수현(사북초) 조윤은(송중초) 차연우(용화초)
	-48kg 최우현(송중초) 홍상운(동남초) 민서준(YK유도클럽)
	-54kg 박도윤(사북초) 정웅(용화초) 김지후(에스유도클럽)
	-60kg 이준수(사북초) 유주원(용암초) 김도윤(GP유도멀티짐)
	-66kg 김가온(영천초) 최민우(천동초) 이우주(논산시유도회)
	+66kg 최승우(양주고급유도관) 최찬영(부안초) 원동휘(송백유도관)
	-36kg 문서아(송중초) 김노을(철원초)
	-40kg 백서진(송중초) 안소정(홍천유도스쿨) 강예빈(한라유도클럽)
	-44kg 강서은(동남초) 박지유(사북초) 이하율(철원초)
여자 17명	-48kg 윤경화(신철원초) 이보윤(무극초) 권도연(광주거점스포츠클럽) 오유림(명덕초)
	-52kg 이예서(내성초) 정아름(동주초) 김현수(인천서흥초)
	+52kg 이보은(김해활천초) 정예온(도천초)
	-57kg 백서영(종암중) 손예슬(용운중) 김소연(울산스포츠과학중)
	-63kg 광유주(플라이유도센터) 이혜원(안락중)
	-70kg 이서현(플라이유도센터) 정아인(도개중) 선에스더(정북정무스포츠클럽)
	+70kg 이서하(용운중) 임수경(금곡중) 심지민(연무여중)
	-45kg
	-52kg
	-57kg

2025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

2025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가 9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순경 특채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

남자	여자
-60kg 오지원(세한대)	-48kg 배승주(가호유도관)
-66kg 박진영(경남대)	-52kg 박정현(용인대강동유도관)
-73kg 최민서(EZ유도관(성남))	-57kg 김한결(민안마이노멀티짐)
-81kg 김민수(부산광역시청)	-63kg 한희주(대구광역시체육회)
-90kg 박상훈(경기대)	-70kg 유예진(경남도청)
-100kg 김도훈(남양주시청)	-78kg 채윤지(안산시청)
+100kg 이현용(광주광역시체육회)	+78kg 조은나(제주특별자치도청)

유도인 동정

이소연·김주유·이정은 국제 심판시험 합격

이소연(대한유도회 상임심판), 김주유(과천시, 과천중 코치), 이정은(대구 남산초 코치) 심판이 8월 18일, 19일 요르단 암만에서 양일간 진행된 국제 심판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

International	이소연	Continental	김주유, 이정은

황희태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체육유공자 포장 수상



황희태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체육유공자 포상에서 전문체육진흥부문 국가대표선수 육성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황희태 감독은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으로 한국 남자유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대표 선수 육성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지난 7월 15일 태릉선수촌에서 시상식이 거행됐다.

대한유도회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변경 안내

2021년 1월부터 적용해온 본회 '각종 제증명 확인서 및 단증 재발급 수수료'가 지난 4년간의 우편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각종 확인서

- 팩스 발급 시 기준 1,000원 → 2,000원(발급수수료 1,000원)
- 우편 발급 시 기준 4,000원 → 6,000원(발급수수료 1,000원, 우편 수수료 1,000원)

2. 대단증 및 각종 자격증 재발급

- 팩스 발급 시 기준 2,000원 → 3,000원(발급수수료 1,000원)
- 우편 발급 시 기준 5,000원 → 7,000원(발급수수료 1,000원, 우편 수수료 1,000원)

3. 선수증 재발급

- 방문 수령 시 기준 3,000원 → 5,000원
- 우편 수령 시 기준 5,000원 → 5,000원(우편료 착불)

*적용시기: 2025년 9월 1일부터

제16회 청풍기전국유도대회

2025. 7. 9.~14. / 충북, 청주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여자초등부									
-32kg	양용재 (충북초등학교)	윤지환 (아시아스포츠)	정지율 (동천초등학교)	김태민 (김재범유도관)	-48kg	유하늘 (영서고등학교)	주수림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형희 (동지여자고등학교)	임연 (남고고등학교)
-36kg	이의리 (충북초등학교)	한주원 (대전천동초등학교)	하정후 (김재범유도관)	유연준 (대전천동초등학교)	-52kg	박예지 (순천미래체육고등학교)	백지호 (주산초등학교)	부다영 (남고고등학교)	박수현 (금고고등학교)
-42kg	배서준 (서북초등학교)	전누리 (충북초등학교)	조윤은 (서울송중초등학교)	전성민 (인천송중유도관)	-57kg	이은지 (금곡고등학교)	이창아 (충북체육고등학교)	송가인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시현 (영서고등학교)
-48kg	최우현 (서울송중초등학교)	민서준 (YK유도클럽)	김민재 (팀동초등학교)	정수현 (서북초등학교)	-63kg	홍다인 (인천체육고등학교)	최연우 (경기체육고등학교)	한율경 (칠원여자고등학교)	이아은 (도고고등학교)
-54kg	백지우 (제이유도팀)	정웅 (용화초등학교)	홍상운 (동남초등학교)	이진우 (동주초등학교)	-70kg	신주원 (경기체육고등학교)	강재우 (충남체육고등학교)	장혜운 (경기체육고등학교)	-
-60kg	김지현 (경기체육고등학교)	황대경 (서울송중초등학교)	이강인 (복성초등학교)	김유경 (경성초등학교)	-66kg	김가온 (영천초등학교)	조유현 (안천한복초등학교)	최민성 (복성초등학교)	최찬영 (부안초등학교)
-66kg	김가온 (영천초등학교)	조유현 (안천한복초등학교)	최민성 (복성초등학교)	최찬영 (부안초등학교)	-78kg	김지현 (경기체육고등학교)	허가은 (대구체육고등학교)	박마리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수빈 (진중고등학교)
+66kg	최승우 (영주고급유도체육관)	이승재 (한솔초등학교)	김지호 (기장군<YUDOSPORTS>)	조우현 (경기체육고등학교)	+78kg	김하은 (경주체육고등학교)	차은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정다정 (경기고등학교)	우채진 (부산체육고등학교)
여자대학부									
-32kg	이다인 (동주초등학교)	이시안 (에스유도클럽)	권다예 (충북초등학교)	이나연 (인천송중유도관)	-60kg	이진환 (한국체육대학교)	염형준 (경기대학교)	배수호 (선문대학교)	김유찬 (국민대학교)
-36kg	문서아 (서울송중초등학교)	김민서 (인천송중유도관)	장혜림 (순천송중초등학교)	김아연 (부봉초등학교) 8위	-66kg	전도원 (충안대학교)	김찬국 (충안대학교)	안현우 (한국체육대학교)	오힘찬 (안하대학교)
-40kg	안소정 (충북체육도구포스터클럽)	권지유 (미포등학교)	김노을 (청원초등학교)	조민희 (한전미포초등학교)	-73kg	김어진 (한국체육대학교)	허정재 (충안대학교)	김래현 (한국체육대학교)	우정명 (한국체육대학교)
-44kg	강예비 (한국유도클럽)	김은솔 (청원초등학교)	이아림 (서울송중학교)	나하일 (서울송중학교)	-81kg	김선우 (한국체육대학교)	박기현 (한국체육대학교)	문운재 (성주대학교)	박민수 (위대대학교)
-48kg	유하율 (안천체육초등학교)	강서운 (동남초등학교)	박지유 (서북초등학교)	횡우진 (금호초등학교)	-90kg	한성우 (국민대학교)	도현진 (경기대학교)	박하민 (충안대학교)	김대명 (충안대학교)
-52kg	김현수 (안천체육초등학교)	허연우 (충남체육관체육관)	남효주 (청원초등학교)	이예수 (내성동중학교)	-100kg	김태영 (경기대학교)	박승경 (경기대학교)	박종찬 (충안대학교)	신민재 (국민대학교)
+52kg	김가온 (청원초등학교)	정지우 (소로초등학교)	배나정 (인천체육도구포스터클럽)	문늘해랑 (법성포초등학교)	+100kg	강재훈 (경기대학교)	김운경 (대구고대대학)	오규현 (우석대학교)	김민성 (세한대학교)
남자중학부									
-45kg	윤준혁 (보성중학교)	박준현 (도개중학교)	김동하 (이음중학교)	이준 (부평서중학교)	-48kg	정수진 (용인대학교)	박소미 (마산대학교)	김민수 (경기대학교)	진해빈 (경기대학교)
-48kg	김태운 (대전한성유도관)	김주원 (도개중학교)	성민재 (청주대성중학교)	박의경 (신현중학교)	-51kg	최연성 (청주중학교)	황우재 (경민중학교)	이서준 (경민중학교)	이태민 (원당중학교)
-55kg	이현 (부평서중학교)	조부건 (서북중학교)	노윤 (청리중학교)	조현우 (운정중학교)	-55kg	김유진 (부평서중학교)	김유진 (부평서중학교)	김성은 (한국체육대학교)	권슬기 (한국체육대학교)
-60kg	이규연 (보성중학교)	김유찬 (부평서중학교)	이동하 (서울체육중학교)	김예준 (경민중학교)	-66kg	김동우 (서울체육중학교)	변은희 (원당중학교)	이연준 (동지중학교)	오범혁 (신천일중학교)
-66kg	김동우 (서울체육중학교)	변은희 (원당중학교)	이연준 (동지중학교)	고은아 (용인대학교)	-73kg	이현준 (경민중학교)	방성혁 (보성중학교)	정은성 (경주체육중학교)	홍윤재 (경주체육중학교)
-73kg	이현준 (경민중학교)	방성혁 (보성중학교)	정은성 (경주체육중학교)	홍윤재 (경주체육중학교)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최아수 (무기중학교)	정승호 (은평중학교)	김준영 (율금동중학교)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최아수 (무기중학교)	정승호 (은평중학교)	김준영 (율금동중학교)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장민서 (부평서중학교)	방병현 (보성중학교)	임주원 (연성중학교)
여자중학부									
-42kg	조은설 (서북중학교)	현예지 (위미중학교)	최지은 (울진여자중학교)	손민서 (울진여자중학교)	-42kg	조은설 (서북중학교)	현예지 (위미중학교)	최지은 (울진여자중학교)	손민서 (울진여자중학교)
-45kg	김민하 (중인중학교)	최소율 (용인중학교)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강은재 (신현여자중학교)	-45kg	김민하 (중인중학교)	최소율 (용인중학교)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강은재 (신현여자중학교)
-48kg	이보윤 (신현여자중학교)	박승희 (경주체육중학교)	박가은 (연성중학교)	정아영 (서울체육중학교)	-52kg	권세현 (서울체육중학교)	박선현 (경주체육중학교)	정은성 (경주체육중학교)	이예수 (경주체육중학교)
-52kg	권세현 (서울체육중학교)	박선현 (경주체육중학교)	정은성 (경주체육중학교)	이예수 (경주체육중학교)	-57kg	배운빈 (연성중학교)	김예빈 (신현여자중학교)	이지나 (서울체육중학교)	박민경 (도개중학교)
-57kg	배운빈 (연성중학교)	김예빈 (신현여자중학교)	이지나 (서울체육중학교)	박민경 (도개중학교)	-63kg	김예빈 (신현여자중학교)	김예빈 (신현여자중학교)	이지나 (서울체육중학교)	박민경 (도개중학교)
-63kg	곽우주 (풀리아유도센터)	김안수 (신현여자중학교)	이혜원 (인천체육중학교)	박시현 (경민여자중학교)	-70kg	이서현 (풀리아유도센터)	김태희 (무기중학교)	김태희 (무기중학교)	이동우 (원당중학교)
-70kg	이서현 (풀리아유도센터)	김태희 (무기중학교)	김려원 (신현여자중학교)	정아영 (도개중학교)	+70kg	심지민 (연수여자중학교)	문예림 (인민중학교)	정예림 (인민중학교)	정예림 (인민중학교)
남자고등부									
-55kg	이주현 (보성고등학교)	이기웅 (대성고등학교)	양현서 (남고고등학교)	김채현 (인천체육고등학교)	-55kg	허승리 (경기고등학교)	우주희 (충북도청)	한수연 (포항시청)	-
-60kg	조연우 (경기고등학교)	엄정현 (경기고등학교)	임기환 (동지고등학교)	윤효원 (인천체육고등학교)	-60kg	황수현 (경주고등공사)	장예진 (포항시청)	양서우 (순천시청)	-
-66kg	이주현 (보성고등학교)	이재준 (남고고등학교)	김승기 (경민고등학교)	김태업 (보성고등학교)	-66kg	박우주 (풀리아유도센터)	이도현 (성동구청)	이수빈 (부산복구청)	-
-73kg	황승운 (남고고등학교)	전민성 (신현원고등학교)	백승재 (보성고등학교)	전진술 (인천체육고등학교)	-73kg	이주연 (제주특별자치도청)	이주연 (제주특별자치도청)	이주연 (제주특별자치도청)	-
-81kg	최성운 (경민고등학교)	김동건 (경민고등학교)	김동건 (경민고등학교)	한경 (경원체육과학고등학교)	-81kg	김예원 (경기고등학교)	김예원 (경기고등학교)	김예원 (경기고등학교)	-
-90kg	전민석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이범웅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준수 (독교고등학교)	김준수 (경기고등학교)	-90kg	김유철 (국군체육부대)	조영학 (국군체육부대)	이승수 (경기체육부대)	홍승연 (안성체육부대)
-100kg	박근호 (경기체육고등학교)	신민성 (경기체육고등학교)	김건택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재민 (경북체육대고등학교)	+100kg	한경진 (경기체육부대)	김도훈 (남원시청)	서재현 (경남도청)	최민철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자일반부									
-42kg	임은수 (부산광역시청)	임은수 (부산광역시청)	박민정 (도개체육부대)	박민정 (도개체육부대)	-42kg	김예진 (경기체육부대)	김예진 (경기체육부대)	김예진 (경기체육부대)	-
-45kg	김민하 (경민체육부대)	최소율 (용인체육부대)	류예나 (서울체육부대)	강은재 (신현여자체육부대)	-45kg	김민하 (경민체육부대)	김민하 (경민체육부대)	김민하 (경민체육부대)	-
-48kg	이보윤 (경기체육부대)	박승희 (경주체육부대)	정아영 (경기체육부대)	정아영 (경기체육부대)	-52kg	권세현 (경기체육부대)	최훈 (경기체육부대)	김대현 (인천광역시청)	-
-52kg	권세현 (경기체육부대)	박선현 (경주체육부대)	김재현 (경주체육부대)	김재현 (경주체육부대)	-57kg	홍규빈 (제주체육부대)	최훈 (경기체육부대)	김대현 (인천광역시청)	-
-63kg	배운빈 (연성체육부대)	김예진 (경기체육부대)	김예진 (경기체육부대)	김예진 (경기체육부대)	-63kg	김예진 (경기체육부대)	김예진 (경기체육부대)	김예진 (경기체육부대)	-
-70kg	이서현 (풀리아유도센터)	김태희 (무기체육부대)	김태희 (무기체육부대)	김태희 (무기체육부대)	-70kg	이서현 (풀리아유도센터)	김태희 (무기체육부대)	김태희 (무기체육부대)	-
-70kg	이서현 (풀리아유도센터)	김태희 (무기체육부대)	김태희 (무기체육부대)	김태희 (무기체육부대)	+70kg	김현태 (경기체육부대)	김현태 (경기체육부대)	김현태 (경기체육부대)	-
여자일반부									
-48kg	허승리 (경기고등학교)	우주희 (충북도청)	한수연 (포항시청)	-	-48kg	김슬아 (서북중학교)	안예은 (에마줄리)	차운지 (임석중학교)	신소희 (서울체육중학교)
-52kg	황수현 (경주고등공사)	장예진 (포항시청)	양서우 (순천시청)	-	-52kg	황수현 (경주고등공사)	강민하 (경민체육부대)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강은재 (신현여자중학교)
-57kg	박다솔 (순천시청)	이도현 (성동구청)	이수빈 (부산복구청)	-	-57kg	박다솔 (순천시청)	이도현 (성동구청)	이수빈 (부산복구청)	강은재 (신현여자중학교)
-63kg	차민자 (경기체육부대)	이주연 (제주체육부대)	채현아 (포항시청)	-	-63kg	차민자 (경기체육부대)	이주연 (제주체육부대)	채현아 (포항시청)	강은재 (신현여자중학교)
-70kg	이예원 (부산복구청)	김지정 (순천시청)	김혜미 (경주고등공사)	정승아 (경남도청)	-70kg	김지정 (순천시청)	김지정 (순천시청)	김혜미 (경주고등공사)	정승아 (경남도청)
-78kg	윤현지 (경기체육부대)	송서연 (부산복구청)	문다슬 (성동구청)	김민주 (경주고등공사)	-78kg	윤현지 (경기체육부대)	송서연 (부산복구청)	문다슬 (성동구청)	김민주 (경주고등공사)
+70kg	장유경 (충북도청)	신지영 (순천시청)	김유빈 (울산광역시유도회)	손정연 (포항시청)	+70kg	장유경 (충북도청)	신지영 (순천시청)	김유빈 (울산광역시유도회)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5. 8. 1.~3. /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유 치 부			
-25kg 원하진 (원팀유도센터)			
남자중학부			
-48kg 박강건 (미스타사크양수유도점)	문주빈 (킹수유도클럽 본점)	조승민 (한국유도광경팀)	황서후 (JNS유도멀티팀)
-52kg 김태윤 (대전성유도관)	조창용 (엘리트유도멀티팀)	박태수 (킹수도클럽 2호점)	서준범 (강성유도멀티점) 오성점
-58kg KIM YEGOR (김재범유도관)	이승현 (우석유도체육관)	안창민 (승탄유도관)	김의준 (대전성유도관)
-66kg 최용준 (김해시립유도관)	정도현 (리더유도점)	조치현 (공명유도관전주대점)	이재범 (미스타사크하나유도점)
-73kg 원지원 (한산유도체육관)	임민서 (파이널밀터리점) 한화점	이근민 (라이너유도관)	이태훈 (시우유도관)
-81kg 최강 (설유도관)	김의준 (미스타사크하나유도점)	김도원 (한양유도관)	박승찬 (고성유도관)
-90kg 신승우 (용인대평유도체육관)	여채명 (파이널밀터리점) 한화점	양도경 (미스타사크하나유도점)	박재민 (장승용도체육아카데미)
+90kg 김민호 (용인대평유도체육관)	정유준 (jupiter) 경기유도관	최용재 (미스타사크양수유도점)	김건우 (프라임유도아카데미)
여자중학부			
-42kg 안서연 (미스타사크양수유도점)	김하린 (미스타사크양수유도점)	장서영 (여수팀클래스유도점)	강민지 (백금유도클럽)
-47kg 이다현 (송탄유도관)	이아영 (송탄유도관)	문사랑 (대전성유도관)	신수아 (선안유도관)
-52kg 인채은 (리더유도점)	이슬 (동탄유도체육관)	이윤형 (SKY유도관)	이하연 (리더유도점)
-57kg 노민선 (킹수도클럽 본점)	정은재 (이제트유도관)	기예나 (다온유도점)	김민경 (예산군유도회유도점)
-63kg 손호연 (파이널밀터리점) 한화점	임정연 (강재범유도관)	김정은 (광주가정스포츠클럽)	
-70kg 박초록 (파이널밀터리점) 성복점	박서연 (공명유도관전주대점)	고다연 (부곡기사부도관)	
+70kg 김지원 (천명유도점)	김누리 (미스타사크김민수도)	김가은 (유도멀티점)	최정현 (경로리아유도관)
남자고등부			
-100kg 김해성 (선봉유도관)	김승준 (국가대표유도클럽)	나인호 (신수유도아카데미) 대성점	김승현 (군자한양유도관)
-55kg 김민우 (파이널밀터리점) 한화점	김동우 (화경유도관)	박재현 (승탄유도관)	하민수 (세종유도관아울점)
-60kg 임현성 (선인유도관)	황찬 (세종유도관아울점)	우성원 (대전유도관)	김시영 (청운유도관대사점)
-66kg 최무건 (용인대화원) 주제점	변준섭 (용인대화원) 주제점	유시후 (용인대원도클럽)	손강민 (한국유도관경팀)
-73kg 이택현 (선봉유도관)	함건 (안산유도체육관)	지명현 (프라임유도아카데미)	최수원 (위례유도관)
-81kg 송유빈 (파이널밀터리점) 성복점	최지우 (무덕유도관)	강태호 (사당유도관)	박정 (천명유도관)
-90kg 권태수 (미스타사크하나유도점)	이유민 (미스타사크하나유도점)	김혁준 (국가대표유도클럽)	전기운 (여수팀클래스유도점)
+100kg 김재윤 (미스타사크개유도점)	최민준 (부천용인대유도체육관)	우상윤 (JNS유도체육관광명점)	강태윤 (미스타사크개유도점)
여자고등부			
-48kg 김나경 (jupiter) 경기유도관	이서영 (송탄유도관KATA)	이현주 (천명유도점) 학성점	김가은 (한국체대 태전유도관)
-52kg 김태림 (꿈실유도관)	임규리 (신념유도관)	강영서 (BROS유도관)	김진의 (JNS유도체육관) 오산점
-57kg 정선아 (미스타사크개유도점)	류하림 (서울유도체육관)	권은지 (용인유도체육관KATA)	이지영 (코리아집) 해운대점
-63kg 박윤지 (대전성유도관)	조민경 (파이널밀터리점) 성복점	박시연 (천명유도점) 학성점	강예지 (이제트유도관)
-70kg 서영채 (고성유도관)	임지현 (JNS유도체육관) 오성점	오혜진 (용인대특훈유도클럽)	장기은 (유사사 유도관수원)
-78kg 정재원 (번성유도점) KATA	서지원 (부평유도관)	전하랑 (경기체육관)	안지윤 (청운유도관남양점)
+78kg 김은혜 (안산유도체육관)	김유나 (진운도관)	전서미 (용인대원도클럽) 광명점	공나연 (코리아집) 해운대점
청년부			
-100kg 김형호 (한류유도관) 대구	김범수 (미스타사크김민수도)	정승우 (JNS유도체육관) 수지점	안철민 (경찰대학)
-60kg 승민기 (대한유도체육관)	이기성 (이우도점)	장수웅 (경찰대학)	이정현 (울산경신유도관)
-66kg 이동호 (승탄유도관)	박무궁 (한류유도관)	유준민 (청운유도관) 미점	이도현 (용인대장진유도관)
-73kg 김태영 (진주유도관)	권준현 (김재범유도관)	박지환 (라이너유도관)	김숙수 (부산경상대학)
-81kg 차대성 (한류유도관) 대구	박상민 (세종유도관보람점)	박지홍 (경명유도관) 대구점	조현우 (법원유도관)
-90kg 김경동 (화경유도관)	구두원 (용인대파워유도관)	박상진 (청운유도관) 미점	전용권 (경성유도점) 오성점
+100kg 이태우 (와우체육관 GYM)	이상철 (팀크로우유도밀티점)	정민기 (위례유도관)	오세훈 (국가대표유도클럽)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5. 8. 1.~3. /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중년부			
장년부			
-100kg 손종율 (용인대별유도클럽)	이진수 (미스타사크김민수도)	-	-
장년부			
-66kg 박형규 (서운유도관)	오승규 (정도관)	-	-
-73kg 최승원 (부자유도관)	KIMPYO (비른향유도관)	박세민 (광주유도관)	-
-81kg 박상현 (비른향유도관)	-	-	-
-90kg 구형모 (파이널밀터리점) 화성점	손봉현 (파이널밀터리점) 화성점	김연태 (백금유도클럽) 충주점	이용진 (JNS유도밀티점)
+100kg 정원준 (공주유도관)	정원준 (공주유도관)	-	-
장년부			
-73kg 윤상훈 (공주유도관)	정일면 (논산시유도회)	-	-
남자초등부(1~2학년)			
-25kg 원서진 (원팀유도센터)	김세준 (미스타사크개유도점)	-	-
-30kg 최시야 (JNS유도체육관광명점)	김기민 (홍성유도관)	이승우 (인천옹동유도관)	한서우 (세이파워)
-35kg 강예성 (JX우아카데미)	서자율 (인천옹동유도관)	박지한 (국가대표유도클럽)	류형빈 (안성옹동유도관)
+35kg 조법진 (선봉유도관)	김민승 (강천대한유도관)	김지현 (유사사유도관남양)	박민건 (공명유도관군산)
남자초등부(3~4학년)			
-30kg 강유준 (인천옹동유도관)	윤주원 (메이유도밀티점)	이시후 (부평유도관)	-
-35kg 김태민 (김재범유도관)	이규하 (인천옹동유도관)	윤리원 (메이유도밀티점)	이도준 (이제트유도관)
-43kg 하주현 (메이유도밀티점)	조이안 (리더유도점)	류지환 (광주유도관)	강하랑 (정읍유도관)
-53kg 김건우 (파이널밀터리점) 성복점	이태율 (백금유도클럽)	정은우 (김재범유도관)	김민준 (신수유아카데미) 울릉점
+53kg 김도성 (경양유도관)	송제윤 (경양유도관)	배민수 (용인대정진유도관)	박도현 (국가대표유도클럽)
남자초등부(5~6학년)			
-35kg 차리율 (국가대표유도클럽)	김지훈 (용한유도클럽) 성복점	임태빈 (미스타사크양수유도점)	김중후 (킹수도클럽 2호점)
-43kg 장재성 (한림유도관)	구하준 (서천초등학교)	송지현 (드림디아유도클럽) 광명점	김은성 (드림디아유도클럽) 경기점
-53kg 정인우 (용인대한유도관)	조유현 (경진코리아유도관)	연진우 (시수유아카데미) 광명점	이주한 (미스타사크김민수도)
-65kg 김민건 (인천옹동유도관)	최시환 (인천옹동유도관)	유재민 (한방유도관)	박시율 (코리아팀유도밀티점)
+65kg 박수범 (청운유도관) 경정점	김리듬 (청운유도관남양점)	최도민 (용인대씨시연신유도관)	노주형 (서천초등학교)
여자초등부(1~2학년)			
-25kg 오하민 (세종유도관보람점)	이은율 (와와유도장)	-	-
-30kg 김채이 (용인파워유도관)	김윤서 (이제트유도관)	-	-
+30kg 안현지 (승부유도관)	이유주 (경명유도관군산)	김승아 (용인대우아유도관)	김다인 (이제트유도관)
여자초등부(3~4학년)			
-30kg 박현서 (서천초등학교)	이미유 (상봉유도회)	오하린 (세종유도관보람점)	김지호 (이우도밀티점)
-36kg 이나윤 (인천옹동유도관)	김윤서 (인천옹동유도관)	최이정 (상봉유도회)	-
-48kg 박별하 (파이널밀터리점) 한화점	박솔민 (코리아팀유도밀티점)	김가빈 (코리아팀유도밀티점)	이지우 (안성옹동유도관)
여자초등부(5~6학년)			
-36kg 황주아 (이제트유도관)	김민슬 (인천옹동유도관)	박소운 (서천초등학교)	김나은 (선인유도관)
-48kg 정아린 (성봉유도관)	가윤지 (와이파워)	정민혜 (선인유도관)	유연아 (광주가정스포츠클럽)
-57kg 박지우 (세이파워)	정서원 (성봉유도관)	조다연 (광주유도관)	김자애 (선인유도관)
+63kg 최지희 (용한유도클럽) 남양점	이여울 (포항남부체육관)	이도의 (이제트유도관)	양지은 (용한유도클럽) 남양점
여자일반부			
-48kg 한현진 (이제트유도관)	이정미 (안산유도체육관)	손현 (부산경상대학)	박서연 (우석대학)
-52kg 김승현 (세종유도관보람점)	조혜빈 (선명유도관)	임민주 (남자 J&J)	김태연 (한국대학교육성체)
-57kg 유민지 (JNS유도밀티점)	김유민 (정읍유도관)	정진현 (한산유도체육관)	김지원 (대한유도관) 대전점
-63kg 유수민 (JNS유도밀티점)	박지민 (안산유도체육관)	최민서 (JNS유도체육관) 수지점	김미지 (청운유도관) 대전점
-70kg 임지연 (BROS유도관)	변세진 (공정유도관부안점)	박민경 (드림디아유도클럽) 광명점	임한솔 (청운유도관) 남양점
-78kg 구민영 (남광유도관)	-	최조연 (용인대씨시연신유도관)	-
+100kg 이태우 (와우체육관 GYM)	이상철 (팀크로우유도밀티점)	정민기 (위례유도관)	오세훈 (국가대표유도클럽)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5. 8. 1.~3. /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4~6학년)	청춘유도관(연경점)A	서천초등학교	-	안철옹유도관
남자중학부	안산유도체육관A	공명유도관(전주대점)A	청춘유도(월성동)	미스타사크양수유도점
여자중학부	리더유도점	공명유도관(전주대점)A	미스타사크김민수도	이제트유도관A
남자고등부	미스타사크호계유도점	신분유도관	안산유도체육관A	송탄유도관
여자고등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2025. 8. 8.~13. /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제53회 추계 전국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국제 유·청소년 파견 선발대회)

2025 AUTUMN VOL.143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32kg	이훈 (국민유도관)	박시우 (양학초등학교)	이지호 (judopia이경유도관)
-36kg	하정후 (김법유도관)	김준우 (에스유도클럽)	최자윤 (양학초등학교)
-42kg	류현서 (양현유도관)	최현성 (양학초등학교)	김도훈 (대구인재초등학교)
-48kg	김민찬 (도봉초등학교)	백지담 (도봉초등학교)	조상우 (양학초등학교)
-54kg	김지후 (에우도클럽)	박승우 (도봉초등학교)	최우준 (서울음암초등학교)
-60kg	유주원 (서울음암초등학교)	김유경 (경동초등학교)	탁기람 (양학초등학교)
-66kg	박은율 (양성동부초등학교)	주아인 (국민유도관)	백광민 (도천초등학교)
+66kg	박재현 (도천초등학교)	노주영 (서천초등학교)	김세민 (양학초등학교)
여자초등부			
-32kg	김나미 (산정초등학교)	박소운 (서천초등학교)	이서진 (서울음암초등학교)
-36kg	장해림 (순천한동초등학교)	변지민 (영동부초등학교)	구나윤 (그랜드유도클럽)
-40kg	최윤아 (제이유도밀티즌)	조민희 (합천야초등학교)	이은수 (합천야초등학교)
-44kg	착수지 (경학초등학교)	이서향 (경남도클럽 본점)	
-48kg	황우지 (금호초등학교)	이지혜 (고경초등학교)	이나희 (금호초등학교)
-52kg	허연우 (용대시내문화유관)	MUNKHBAT EMUJIN	박연우 (judopia이경유도관)
+52kg	정예은 (도천초등학교)	김서연 (감천부초등학교)	정예승 (영동이수초등학교)
남자중학부			
-45kg	윤준혁 (보성중학교)	최대진 (보성중학교)	고은찬 (고경중학교)
-48kg	김주원 (도경중학교)	이도현 (성암중학교)	이규원 (보성중학교)
-51kg	김도민 (보성중학교)	윤백현 (세종유도관보람점)	권지훈 (도경중학교)
-55kg	차원혁 (보성중학교)	정준혁 (보성중학교)	김현준 (보성중학교)
-60kg	왕건 (노경중학교)	강지연 (애월학교)	차민기 (성남중학교)
-66kg	이동재 (서울체육중학교)	이규연 (보성중학교)	윤지호 (부평시중학교)
-73kg	전현우 (과천중학교)	문준서 (보성중학교)	김세운 (성도중학교)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차원준 (보성중학교)	엄기동 (용인남양유도관)
-90kg	김재후 (보성중학교)	윤지웅 (온정중학교)	임동수 (제주중학교)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이한호 (중강중학교)	박지훈 (부평시중학교)
여자중학부			
-42kg	안예은 (애월중학교)	최기윤 (도경중학교)	정예원 (judopia이경유도관)
-45kg	양아영 (애월중학교)	서혜원 (용인중학교)	윤미연 (선릉중학교)
-48kg	김태윤 (한국마사회)	김수연 (충북체육부대)	김기수 (용인중학교)
-52kg	황시연 (선문대학교)	유슬기 (선문대학교)	-
-57kg	김나미 (선문대학교)	김담미 (선문대학교)	양은서 (선문대학교)
-60kg	이승우 (온정중학교)	나선영 (선문대학교)	-
-66kg	손예린 (선문대학교)	조유빈 (선문대학교)	-
-73kg	김현우 (한국마사회)	김현우 (한국마사회)	-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김현우 (한국마사회)	-
-90kg	김재후 (보성중학교)	윤지웅 (온정중학교)	-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이한호 (중강중학교)	-
여자일반부			
-42kg	안예은 (애월중학교)	최기윤 (도경중학교)	정예원 (judopia이경유도관)
-45kg	양아영 (애월중학교)	서혜원 (용인중학교)	윤미연 (선릉중학교)
-48kg	김아영 (애월중학교)	조혜원 (모리중학교)	박서영 (도경중학교)
-52kg	김태윤 (한국마사회)	고지아 (노경중학교)	김아린 (도경중학교)
-57kg	이지나 (애월체육중학교)	손예슬 (용인중학교)	김정호 (전령중학교)
-63kg	김민진 (마리암체육관)	김민진 (마리암체육관)	김하율 (JNS유도밀티즌)
-70kg	이현아 (애월중학교)	김현아 (애월중학교)	김현아 (애월중학교)
-78kg	정선아 (선문대학교)	김현아 (선문대학교)	김현아 (선문대학교)
남자일반부			
-48kg	박은이 (고경군청)	-	유주희 (충북도청)
-55kg	이기웅 (대구고등학교)	이하늘 (용인고등학교)	이한울 (청천고등학교)
-60kg	류원빈 (보성고등학교)	이현율 (경기고등학교)	신정호 (청석고등학교)
-66kg	김정우 (경기고등학교)	김정우 (경기고등학교)	김정우 (경기고등학교)
-73kg	김태현 (경기고등학교)	김태현 (경기고등학교)	김태현 (경기고등학교)
-81kg	김기현 (경기고등학교)	김기현 (경기고등학교)	김기현 (경기고등학교)
-90kg	김기현 (경기고등학교)	김기현 (경기고등학교)	김기현 (경기고등학교)
+100kg	차봉 (보성고등학교)	김기현 (경기고등학교)	김기현 (경기고등학교)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	도봉초등학교	양학초등학교	서울음암초등학교
남자고등부	해동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김천중앙고등학교
여자고등부	도개고등학교	광여자고등학교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남자대학부	김천대학교	대구과학대학	-
여자대학부	선문대학교	미산대학교	-
남자일반부	포항시청	한국마사회	용인시청
여자일반부	순천시청	포항시청	충북도청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36kg	이의리 (송남초등학교)	김준우 (에스우도클럽)	김도율 (인천선도초등학교)
-42kg	백서준 (서북초등학교)	전성민 (안철유도관)	전누리 (충북초등학교)
-48kg	김태우 (경기초등학교)	이주현 (미스터시크김수수도)	이지후 (judopia이경유도관)
-57kg	이채경 (서울체육고등학교)	윤아라 (용인대법유도클럽)	이수연 (광명여자고등학교)
-63kg	이아은 (도개고등학교)	이수운 (동남초등학교)	김민건 (JNS유도체육관수도)
-69kg	이민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진우 (동주초등학교)	허지후 (경기체육관수도)
-75kg	김지우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우경 (경기체육고등학교)	박도윤 (서북초등학교)
-81kg	이은경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운성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운성 (경기체육고등학교)
-87kg	김기아 (경기체육고등학교)	김기아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준우 (경기체육고등학교)
-93kg	김기현 (경기체육고등학교)	김기현 (경기체육고등학교)	최시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여자초등부			
-32kg	이다인 (동주초등학교)	이시안 (에스우도클립)	박소운 (서천초등학교)
-38kg	백수현 (서북초등학교)	김민슬 (안철유도관)	장혜림 (서천초등학교)
-44kg	김도연 (경기체육고등학교)	김노 (경기체육고등학교)	김도희 (경기체육고등학교)
-50kg	이승훈 (세종대학교)	이승훈 (세종대학교)	박준용 (경기체육고등학교)
-56kg	이보윤 (경기체육고등학교)	이보윤 (경기체육고등학교)	전예승 (경기체육고등학교)
-62kg	박현성 (경기체육고등학교)	박현성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시우 (경기체육고등학교)
-68kg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74kg	이승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승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준수 (경기체육고등학교)
-80kg	박재현 (도천초등학교)	박재현 (도천초등학교)	최시우 (경기체육고등학교)
남자대학부			
-32kg	이시안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시안 (경기체육고등학교)	박수운 (서천초등학교)
-38kg	백수현 (서북초등학교)	김민슬 (안철유도관)	장혜림 (서천초등학교)
-44kg	김도연 (경기체육고등학교)	김도연 (경기체육고등학교)	최윤아 (제이체육유도밀티즌)
-50kg	이승훈 (세종대학교)	이승훈 (세종대학교)	박준용 (경기체육고등학교)
-56kg	이보윤 (경기체육고등학교)	이보윤 (경기체육고등학교)	전예승 (경기체육고등학교)
-62kg	박현성 (경기체육고등학교)	박현성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시우 (경기체육고등학교)
-68kg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74kg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준수 (경기체육고등학교)
-80kg	박재현 (도천초등학교)	박재현 (도천초등학교)	최시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여자대학부			
-32kg	이다인 (동주초등학교)	이시안 (에스우도클립)	박수운 (서천초등학교)
-38kg	백수현 (서북초등학교)	김민슬 (안철유도관)	장혜림 (서천초등학교)
-44kg	김도연 (경기체육고등학교)	김도연 (경기체육고등학교)	최윤아 (제이체육유도밀티즌)
-50kg	이승훈 (세종대학교)	이승훈 (세종대학교)	박준용 (경기체육고등학교)
-56kg	이보윤 (경기체육고등학교)	이보윤 (경기체육고등학교)	전예승 (경기체육고등학교)
-62kg	박현성 (경기체육고등학교)	박현성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시우 (경기체육고등학교)
-68kg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74kg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현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준수 (경기체육고등학교)
-80kg	박재현 (도천초등학교)	박재현 (도천초등학교)	최시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여자중학부			
-42kg	김승아 (서북중학교)	이채현 (경기중학교)	김지형 (제주서중학교)
-48kg	이정우 (경기중학교)	조은설 (서북중학교)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54kg	김정호 (경기중학교)	이보윤 (신한여자중학교)	구나연 (경기중학교)
-60kg	이승현 (경기중학교)	이보윤 (신한여자중학교)	정라은 (경북정무스포츠클럽)
-66kg	이현우 (경기중학교)	이현우 (경기중학교)	박보민 (경기중학교)
-72kg	이현우 (경기중학교)	이현우 (경기중학교)	김기은 (경기중학교)
-78kg	이현우 (경기중학교)	이현우 (경기중학교)	김기은 (경기중학교)
-84kg	이현우 (경기중학교)	이현우 (경기중학교)	김기은 (경기중학교)
-90kg	이현우 (경기중학교)	이현우 (경기중학교)	김기은 (경기중학교)
남자중학부 1학년			
-40kg	김승아 (서북중학교)	이채현 (경기중학교)	김하임 (경기중학교)
-46kg	이정우 (경기중학교)	조은설 (서북중학교)	김나연 (경기중학교)
-52kg	김정호 (경기중학교)	이보윤 (신한여자중학교)	정라은 (경북정무스포츠클럽)
-58kg	이승현 (경기중학교)	이현우 (경기중학교)	박보민 (경기중학교)
-64kg	이현우 (경기중학교)	이현우 (경기중학교)	김기은 (경기중학교)
-70kg	이현우 (경기중학교)	이현우 (경기중학교)	정라은 (경기중학교)
-76kg	이현우 (경기중학교)	이현우 (경기중학교)	김기은 (경기중학교)
-82kg</			





딱 하나의 영양제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당신의 그 생각을 알기에 [더블엑스]는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를 넘어, 지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한국인에게 맞는 영양 조합은 무엇인지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많은 영양소를 넘어, 좋은 영양소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영양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포뮬러]

[원재료의 영양을 담아내기 위한 뉴트리라이트 컨센트레이션 테크놀로지]

[뉴트리라이트 자체 건강 연구소 + 약 2,400만m² 이상의 광대한 자체 생태계농장]

당신을 위한 '딱 하나의 영양제'가 되기 위한 생각,
[더블엑스]의 진심입니다.

#딱_하나의_영양제 #영양제를_딱_하나만_고른다면

#뉴트리라이트_과학의_결정체

#한국인의_건강공식 #한국인_맞춤_영양_설계

더블엑스™



제품명: 더블엑스 제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명: 액세스 비즈니스 그룹 엘엘씨 미국 수입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이)주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나에게 이롭게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AI 은행원

서울 종로구 서소문로 17 (성암 9번 출구)에 위치한 AI 브랜치는
제작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지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077-8000, 협업이나 18시 기준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법적인 사전승인 제 2025-1123-1호 (2025.03.26~2027.03.25)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행
신한은행



**아디다스 컴뱃스포츠
ADIDAS COMBAT SPORTS KOREA**

WEBSITE : www.acskorea.co.kr

INSTAGRAM : @acskorea_judo

TEL : 02-3019-3808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주)큰산컴퍼니**

TEL : 010-7557-1371

ADD : 부산 남구 대연동 243-7



주도코리아 유도복

아디다스 컴뱃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포타운 4층